

12. 2월 + 0
2월 17
3

12

2 0 1 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이달의 표지 작가

박성연

2016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작가. 이화여대와 영국 첼시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문학, 연극, 사운드, 비디오, 텍스타일, 세라믹 등을 융합해 독특한 공감각적 예술 언어를 보여주고 있다. 뉴욕 아트 오마이 레지던시(Art Omi International Residency), 뉴욕 ISCP(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맥도웰 콜로니(MacDowell Colony), 타이베이문화재단의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Taipei Artist Village),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독일 뒤셀도르프 교환 프로그램, 클레이아크 세라믹 창작스튜디오 등의 레지던시에 참가하며 자신의 작품을 심화하고 있다. 현재 건국대 다이나믹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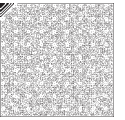


2



3

- 1 <Door Knob> 세라믹 | 11 × 11cm | 2016
- 2 <Everyday Urban Life-Pipe Handle> 세라믹 | 15 × 11.5cm | 2016
- 3 <Everyday Urban Life-Plug & Socket> 세부 이미지
- 4 <Everyday Urban Life-Water Valves> 세라믹 | 6 × 17cm | 2016



4



표지 작품 <The Hidden Space> 전시 전경
털실로 만든 의자 팔걸이 | 2013

나는 일상공간을 소재로 상상공간과 현실공간이 혼재된 모습을 재현하여 보여준다. 일상공간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오감을 통해 발현시켜 전시공간을 살아 있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문화+서울]에 소개하는 작품처럼 시멘트벽을 뚫고 나온 듯한 부드러운 털실 의자 팔걸이, 익숙한 집안의 사물들(수도꼭지, 문손잡이, 양동이, 전기 플러그 등)에 소리나 영상을 접목하여 다양한 공감각적 환기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공간뿐 아니라 평범한 생활공간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을 대상을 상상하며 현재의 관람객이 이 공간과 공간에서 발생했음직한 여러 이야기들을 상상하도록 한다.

나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움직임들을 통해 미시적이며 거시적인 개인의 이야기, 일상사, 사회 현상을 표현한다. 결국 나의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일상공간의 환기이며 도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반복이 크고 작은 관계를 만들고 도시인들에게 유동적인 울림을 전하기 때문이다.

CONTENTS

2017.12 — VOL.130



06

테마 토크 기부문화로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로

정치 사회 전반에 쌓인 피로감을 견어내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지금, 이익만을 위해 끼리끼리 뭉치는 '내부자'가 아닌,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서로 돕는 '기부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12월 '테마 토크'에서는 예술계 기부문화의 당위성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술의 공유 가치 확산과 예술계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본다. 서울문화재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도 담았다.



22

사람과 사람 작곡가 진은숙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이 아시아인 최초로 '비후리 시벨리우스 음악상'을 수상했다. 2004년 그라베마이어상, 2005년 쇤베르크상에 이어 올해 시벨리우스 음악상을 수상하며 소위 작곡상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셈이다. 지난 11월, 베를린 필하모닉과 신작 <코로스 코르돈>의 세계 초연을 앞두고 있던 진은숙 작곡가를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주철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안현미,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
발행일 2017년 11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32

진실 혹은 대담 2017 청년예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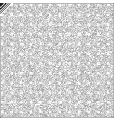
'2017 청년예술포럼'은 서울시의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은 크게 서울문화재단의 '최초 예술지원' 사업과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서울청년예술단' 두 가지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후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전략과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허심탄화하게 얘기를 나눠보았다.



46

화제 1 운동주 탄생 100주년

올해 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운동주 시인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국내외에서 개최되었다. 12월 30일 운동주 시인이 태어난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짧지만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가 한국 문학사의 별이 된 운동주 시인을 떠올리며 그의 작품을 더듬어본다.



- 01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박성연

- 04 발행인의 말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다섯 번째

테마 토크 기부문화로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로

- 08 기부문화가 필요한 이유
기부, 예술의 공유 가치를 만드는 방법

- 10 장해랑 EBS 사장과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의
특별 대담
방송과 문화가 만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16 서울문화재단의 기부제휴사업
전문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예술과 사람을 잇다

- 20 예술계 펀드레이징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바람직한 기부관계 형성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

- 22 작곡가 진은숙
‘미래의 결작’과 만날 시간
- 28 영화평론가 최재훈
“영상을 정직한 언어로 읽어주고 싶다”

- 32 진실 혹은 대담
2017 청년예술포럼

- 38 예술가의 밥그릇
천연염색활동가 조미숙

- 40 서울 찰나
장석남의 시 <하문> 중에서

공간, 공감

- 52 공간1
‘영똥한 사진관 for 대학로’ 프로젝트
결과전시 <6470展>

- 54 공간2
SeMA 벙커

- 56 공감1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 58 공감2
전시 <리처드 해밀턴: 연속적 강박>과
<요나스 메카스: 찰나, 힐끗, 돌아보다>

- 60 공감3
책 <나인>과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

- 62 예술적 상담소

이슈 & 토픽

- 42 쟁점1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축소 논란

- 44 쟁점2
미등록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련 문제

- 46 화제1
윤동주 탄생 100주년

- 48 화제2
문화예술공간의 임금상향 매뉴얼

- 50 아무나, 아문화! PD
2017 서울시민예술대학 프로그램
‘작곡하는 당신 <음악작당 Rubato>’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그 시절의 대세 헤어

- 66 서울 단상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의 서촌 예찬

- 68 고재열의 썰(說)
서울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

- 70 최은규의 음악 정원으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과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인형>

- 72 서울 건축 읽기
장충동 문화주택

- 74 영화의 틈
여성 예술가의 삶을 조명한 <파올라>

12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76 12월 Calendar

- 84 편집 후기

주철환의 더다이즘, 열다섯 번째

갈 수 없는 나라

어김없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찾아왔다'고 썼지만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12월이 닥쳤고 어떤 사람 앞으로는 12월이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2월이 찾아오지도, 닥치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니다. 왜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이 오지 않았으므로 죽은 이에겐 당연히 1월도 오지 않을 겁니다.

이맘때가 되면 다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이 몇 곡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유명했던 소설가 조해일이 작사를 하고 듀엣 해바라기의 이주호가 곡을 붙인 <갈 수 없는 나라>도 그런 노래들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 애창곡이었으므로 가사를 술술 적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마음에 사랑을 주려 왔던 너
너의 작은 가슴 그러나 큰 마음
정의 없는 마음에 몸 바쳐 쓰러진 너
너의 작은 손 그러나 큰 슬픔

네가 해매어 찾던 나라
맑은 햇빛과 나무와
풀과 꽃들이 있는 나라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러나 그곳은 갈 수 없는 낙원
네가 가버린 갈 수 없는 나라

TV에서 이 노래를 만난다는 건 행운에 가깝습니다. (<콘서트 7080>에서 아주 가끔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라기보다 노래를 부른 해바라기에겐 <행복을 주는 사람>, <모두가 사랑이에요>, <어서 말을 해>, <내 마음의 보석상자> 등 불멸의 히트곡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라는, 모두가 손을 높이 올려 물결을 만들었던 그 노래, 한때 <열린 음악회>의 마지막 곡으로 안성맞춤이었던 <사랑으로>도 해바라기의 작품입니다.

기록을 검색해보니 오리지널 <갈 수 없는 나라>는 1985년 초에 발표한 해바라기 2집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 있는 가사를 훑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정의 없는 마음에 몸 바쳐 쓰러진 너’라고 듣고, 또 그렇게 불렀는데 그 어디에도 ‘정의’라는 가사는 없고 그 자리에 ‘정’이라는 글자가 동그마니 남아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워했던 노래 속의 ‘너’는 정의 없는 마음에 몸 바쳐 쓰러진 게 아니라 정(情)이 없는 마음에 몸 바쳐 쓰러진 거였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지 않아서 아직까진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허탈감이 잠시 머물렀고 깨달음은 오래 저를 휘감았습니다. 각성의 정체는 이러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던 겁니다. 귀가 그러했으니 눈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문득 지난가을에 밤하늘의 달을 보다가 끼적였던 자작시 한 편이 떠오릅니다.



달은
자기가 이렇게
이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을까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이름 붙인다
반만 보이면 반달
반의반만 보이면 초승달
안 보일 땐 그믐달
그러나
달은 언제나 보름달이었다
가볍게 사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

몽상가의 생각은 원래 꼬리가 겁니다. 정의냐, 정(情)이나. 문득 정의 이름으로 정의가 살아난 적이 얼마나 됐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불의의 상징이 된 전두환 군부세력이 만든 정당의 이름은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정의'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정'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했던 적은 없었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정의와 정의감은 분명 다를 텐데 그 둘을 혼동한 적은 없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따끔한 말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배우 김영철이 내뱉은 명대사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가 오버랩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반성은 없고 반발만 무성하게 만드는 세상은 결국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겁니다. 지금 핏발 선 눈으로 야단치는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정의감과 함께 인간적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세월이라는 것을 어느 지점에서 알아챈 덕분입니다.

세월 앞에서 당당해지기란 웬만해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월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달입니다. 한때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전염병처럼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의도, 정(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의만 소리를 내고 정은 종적을 감춘다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영원히 갈 수 없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금씩 듭니다.

첫 문장을 '어김없이'로 시작했는데 어김없이 마지막 문장 가까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기지 않고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약속도 어기지 않고 다짐도 어기지 않기란 더더욱 힘듭니다. 이제 12월의 단상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사랑의 온도>를 쓴 하명희 작가는 제목을 참 잘 짓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분이 지은 드라마 제목입니다. 세상이 추워질수록 사랑의 온도를 조금 높이는 건 따끔한 말 한마디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따라 맑은 햇빛과 나무와 풀과 꽃들,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가 그립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철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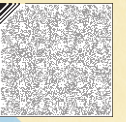
기부문화로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로

우리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격동의 2017년을 보냈다. 정치 사회 전반에 쌓인 피로감을 견어내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지금,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따뜻하고 애정 어린 관심이 중요하다. 이익만을 위해 끼리끼리 뭉치는 '내부자'가 아닌,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서로 돕는 '기부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던 문화에서 벗어나, 개인적 차원에서 인류와 사회라는 집합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기부와 사회공헌 행위 '필란트로피'(philanthropy)¹⁾로 확장해나가야 한다.

12월 '테마 토크'에서는 예술계 기부문화의 당위성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술의 공유 가치 확산과 예술계 기부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본다. 서울문화재단 기부제휴사업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디어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매개자로서의 역할과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도 담았다.

1) '박애'를 의미하는 독일어로, 빈자에 대한 관대함을 뜻한다.





기부 문화가 필요한 이유

기부,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은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복지가 최근 공동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예술 분야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얻으려면, 무엇보다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기부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기부는 돈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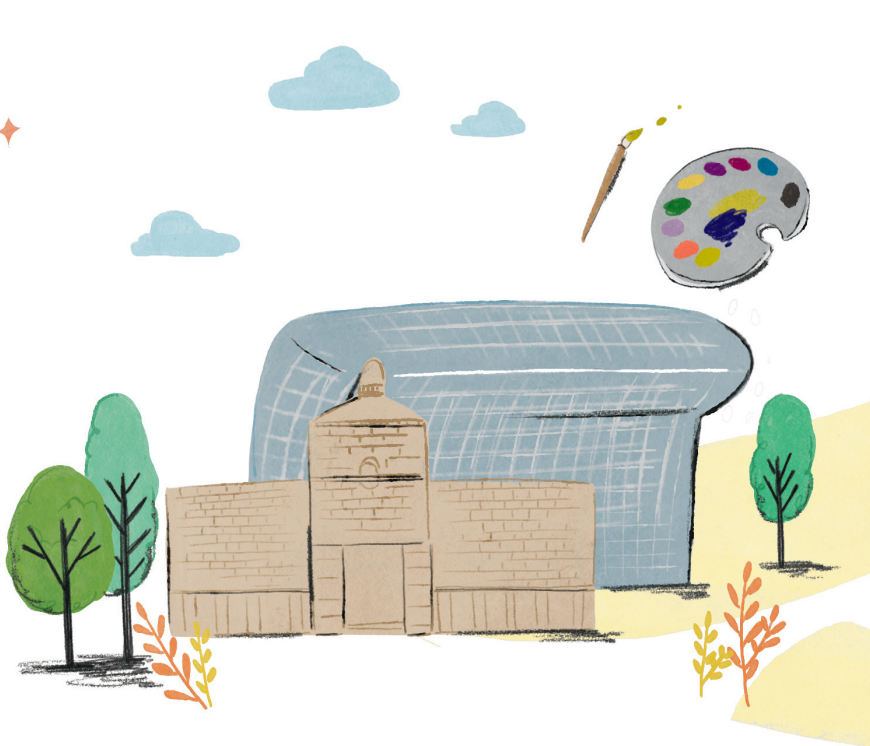
고 그 꿈을 통해 내 이웃과 사회에 어떤 유익함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품고 노력하게 해야 한다. 남이 만들어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인생일지는 몰라도 허무감이나 방향의 높으로 빠지기 쉬운 인생이다. 진정한 성취감과 세상을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열정을 기대하기엔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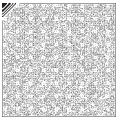
우리 모두가 바라는 더 나은 세상과 더 좋은 삶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내 이웃과 함께 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세상을 유익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수의 열정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 최근 복지가 국가적 관심이 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고 교육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술 분야는 이런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듯하다. 예술교육이 인성의 발달과 지성과 감성의 균형 잡힌 성장 및 건강한 인격체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수년 전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기사를 읽고 가족회의를 열어 기부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다. 온 가족의 기부금을 합하면 더 큰 금액이 되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만들어 모금 사무국을 방문했다. 온 가족이 각각 저금통을 깨서 가져온 상황이 특이했던지 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기념관이 완공된 뒤 아이들과 방문하여 자신의 소중한 돈이 어떤 선한 결과물을 가져왔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 경험은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더 나은 세상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길 바랄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부모들이 편안한 길, 검증된 길을 선호하며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온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은 '꿈'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재단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좀 더 풍부한 감성과 지성을 갖춘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우선 아동, 청소년들의 특기적성 활동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안의 개성과 다양성을 계발하게 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작은 즐거움 하나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산간벽지, 소외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이라는 작은 감동의 씨앗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행은 길 위의 선생님 없는 수업이다'라는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의 부재나 해체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혹은 빈곤한 가계로 인해 복지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

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여행은 꿈꾸기 힘든 사치일 수 있다. 희망의 길 떠나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팍팍함과 각박함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편, 엘 시스템아(El Sistema)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악기를 주고 음악을 가르쳐 베네수엘라의 빈민가 아이들을 마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LA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구스타보 두다멜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한 음악교육 시스템이다. 우리 민족은 유독 예술적 재능이 풍부하다. 예술에 소질이 있어도 비싼 사교육비로 인해 배울 기회를 갖기 힘든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예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후원해주는 것이야말로 후세대에 대한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싶다.

사랑의 폭을 넓히자. 관심의 폭을 넓히자. 나부터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참여하자. 일회성 기부와 후원을 넘어 사회적 문화와 시스템으로서 기부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공유 가치를 만들어보자.

글 박성연,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이사 그림 박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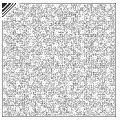
장 해 랑 E B S 사 장 과 주 철 환
서 울 문 화 재 단 대 표 의 특 별 대 담



방 송 과
문 화 가
만 나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서울문화재단과 EBS가 서로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문화예술로 시민과 시청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예술을 통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1월 6일,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장해랑 EBS 사장이 만나 두 기관의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EBS의 방송 제작 노하우를 접목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고, 이를 위한 자원과 관련하여 공동 펀딩과 기부까지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담자 장해랑(EBS 사장), 주철환(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참석자 최혜경(EBS 방송제작본부장), 추덕담(EBS 학교교육본부장),
 이은정(EBS 콘텐츠기획센터장), 한송희(EBS 교양문화부장),
 김해보(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홍남(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실장),
 이규승(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일시 2017년 11월 6일 오후 4시
장소 EBS 일산 사옥

김 해 보 오늘 대담의 최초 기획은 '방송과 문화재단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재미있게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초에 서울문화재단의 예술후원캠페인 '우리 내기할까요' 코드에 맞추려고 했으나, 오늘은 두 기관의 협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방송과 문화가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발걸음으로 가야 할지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 두 기관이 함께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서로의 에너지를 합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한 송 희 저희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학교예술교육' 콘텐츠입니다. EBS에서는 지금 중학교 협력종합예술과 어린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STEM & 아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사업과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야, 놀자!' (가제)라는 신규 기획물입니다. 문화현장과 <알쓸신잡> 콘셉트가 결합된 것으로, 문화현장에 패널들이 함께하는 문화감상 프로젝트입니다. 예능을 넘어서 교양이 어우러진 것으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문화예술 콘텐츠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시각과 소재를 다루는 정통 다큐멘터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콘텐츠와 함께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축제 콘텐츠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축제를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서울거리예술축제 중계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예술 콘텐츠 영역을 강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 철 환 말씀을 들으니 너무 기쁘고 가슴이 뛰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참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

네요. 앞으로 저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단 프로그램에 미디어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EBS와 이번에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과감한 인사 교류를 제안하고 싶어요. EBS 직원 몇 명이 재단에 와서 일정 기간 근무해보는 겁니다.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3개월도 좋고 1년도 좋아요. 저희도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EBS에 보내는 거죠. 저희는 사실 거의 매일이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재단에 붙은 포스터만 봐도 방송으로 하면 좋을 것들이 많아요. 최근 진행한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나 '서울거리예술축제' 같은 행사가 방송으로 남겨지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EBS에서 제안해주는 것은 단계별로 진행하고, 그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서울문화재단은 미디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EBS는 방송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요? 2018년은 EBS와 저희가 거의 하나로 움직이는 해가 되어야 해요. 서로가 협력해서 시민과 시청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적 자원 교류를 제안합니다.

장 해 랑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엔 저희가 10대 실천과제를 뽑을 텐데, 그중 하나로 '문화'를 넣을 생각이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 단계입니다. 그에 맞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몇 개 선보일 예정이고요. 봄 개편이 2월 말인데, 그중 하나를 1월 1일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교육혁명을 이루겠다는 슬로건에 따라 연중 달성해야 할 목표를 내세울 겁니다. 문화 프로그램 강화가 그중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한다 생각하고요, 앞서 네 가지 유형을 던져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또 MOU나 예산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지요. 1월 1일이 어렵다면 2월 말쯤 연중 목표를 잡아서 어떻게



오늘
시청자와
재단



교육, 방송, 문화, 재단의
협력은 어마어마한 교육혁명,
문화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말보다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 친화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하겠죠.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시작하겠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일정과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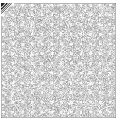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EBS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축적된 경험과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정을 1월 1일, 2월 말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그냥 가져다 대면 됩니다. 저희가 '내 손 안에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령 금천예술공장에 가면 미디어아트를 볼 수 있고, 연희문학창작촌에 가면 성석제 작가와 대화할 수 있고,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 가면 어머니들이 참여하는 위드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요. 서울예술치유허브에 가면 마음을 치유해주는 마음약방이 있고,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 가면 서커스를 하는 세계적인 젊은 예술가들이 있어요. 다큐가 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



들이 많죠. 재단에 '스팩킹'(SFAC(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peaking)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인지도 있는 외부 인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걸 중계하는 것도 좋겠죠. 프로그램이 될 만한 요소는 무궁무진해요. 그냥 흩어지던 이런 아까운 프로그램들이 EBS라는 끈을 만난 셈이죠. 그동안 구슬이 서 말이었는데 이것을 꿰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에 재단을 동숭아트센터로 이전할 계획인데 그곳에 EBS 분관 같은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대학로는 젊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꽃피우던 장소 아닙니까. 재단이 대학로에서 땀 흘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2019년 3월 1일이 기미독립선언 10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문화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어요. 문화는 자율, 창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라는 의미를 담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EBS와 함께하게 된 것은 저희 입장에선 훌륭한 나팔이 생긴 셈이죠. EBS의 입장에서는 교육혁명이라는 지향점을 두고 공부하는 채널, 수능 관련 채널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협력을 통해 이제 교육, 미디어, 문화, 예술을 하나로 아우르는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이 굉장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송희 양쪽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하신 듯합니다. 더 추가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주철환 우리대로의 방식으로, 새로운 포맷으로 가야 해요. EBS에서 새로운 포맷을 만들고 종편이나 지상파가 따라 할 수 있게 해야



지, 다른 채널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건 반대합니다. 공간, 시간, 인간이 조금씩 바뀐 것 같은 느낌으로는 안 돼요. 교육혁명이 되려면 방송혁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무엇인가가 있지 않으면 '혁명'이라는 건 구호에 불과할 수 있지요.

김 해 보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했을 때는 오히려 EBS 프로그램 포맷에 재단 콘텐츠를 맞추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채널e>가 아니라 '예술채널'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하는 거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는 카메라를 갖다 대면 방송이 될 만한 콘텐츠들이 꽤 있습니다.

주 철 환 학교예술 콘텐츠는 재단에서 이미 230명의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 이하 TA)가 하고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TA라 하더라도 기존의 교육방송처럼 하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림이 달라야 합니다. 제가 EBS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예요. 기존의 반려동물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이 프로는 '개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시각으로 개를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보고, 강형욱이라는 새로운 전문가를 발굴했잖아요. 굉장히 교육적이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재단 후원 기업 중에 조아제약이 있어요.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장애인 예술가들이 있는데, 장애인 예술가 작품이 조아제약의 약품 패키지로 활용되고 있어요. 서로 윈윈하는 사례죠. 또 지명도 있는 예술가가 장애인 아이들을 멘토링해주는 '프로젝트A'라는 것도 있는데, 이처럼 이야기와 감동이 있는 콘텐츠들이 재단에 차고 넘쳐요.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EBS와 협업하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 셈이죠.

장 해 랑 재단에는 디테일한 콘텐츠가 많은데, 그런 콘텐츠가 부각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주 철 환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고,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순서를 정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재단에서 59년 왕십리 축제를 기획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왕십리'라고 하면 낡은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지금 왕십리역을 가보세요. 얼마나 새롭게 변화됐어요. 59년 생들을 불러다가 '다시 날자, 호랑나비'라는 축제를 여는 거죠. <59년 왕십리>를 부른 김홍국을 광대로 내세우고, 유시민, 심상정 등을 불러서 59년생 대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또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일환으로 'DOC와 춤을'이란 축제도 기획하고 있어요. <DOC와 춤

을>이란 노래 아시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노래인데, 내년이 DJ DOC 데뷔 25주년이거든요.

김 해 보 결국 의기투합해서 기존에 각 기관에서 해왔던 좋은 포맷을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재단의 좋은 콘텐츠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방송과의 협력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철 환 연합뉴스 TV나 YTN이 매 시간 뉴스를 방송하듯 EBS2는 시간대별로 교육방송을 계속 내보내면 어떨까 해요. 인기 있는 사람을 쓰지 못할 바에는 굳이 유명인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TA 중에도 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시간대를 계속 바꿔가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필요도 없이 좋은 진행자만 하나 두고 뉴스 앵커처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육 앵커들을 발굴해서 장애인, 축제 등 분야별 교육 이슈를 실시간 방송하는 거죠.

장 해 랑 저희는 교육문화를 강화하려고 해요. 흡입력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중계자를 준비해서 나가자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마 라디오에서 먼저 시도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문화예술은 EBS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노력해왔는데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시청률이 안 나오고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어서예요. 아이템은 계속 바뀌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느 날부터 찬밥이 됐어요. 사실 저는 재단이 하는 많은 일을 잘 몰랐어요. 주철환 대표님이 오시면서 다시 한 번 부각되고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이제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해요. 내용을 보니 교육, 예술가 지원, TA 등 많은 사업이 있었네요. 뭔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요. 핵심 문화예술 콘텐츠 하나를 중심으로 깔고 가면서 축제 등이 있을 때 저희가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기적으로 가져갈 것들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철 환 <슈퍼스타K>는 어찌 보면 <전국 노래자랑>의 확장판인데요. <슈퍼스타K>가 뜬 이유는 참가자의 숨은 이야기 등을 드라마틱하게 담았기 때문이죠. 서울거리예술축제도 마찬가지로 10월에 축제를 앞두고 준비한다면 년센스쇼,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다뤄야 하는 거예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행정스태프,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외국인 예술가들도 있고 다양한 스토리가 많아요. 단순히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중계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축제의 준비 과정을 1년 이상 담아야 해요. 시청자들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한 송 희 양 기관에서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좁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이 공동 기획, 공동 프로젝트까지 생각하고 계시니 구체적인 콘텐츠 작업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소요재원에 관한 공동 펀딩인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김 홍 남 제휴협력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고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부나 모금, 제휴 같은 것들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와 관련된 니즈가 보이면 바로 저희에게 연결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놔두면 절대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각 파트에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연결해주면 저희가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맡은 파트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 진행이 안 됩니다. 대표님도 솔루션 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장 해 랑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문화독립선언'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가면서 그 부분을 어디에서 후원 받을지를 고민해야겠죠. 저희는 재단의 대외협력 노하우, 메세나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싶어요. 메세나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주 철 환 기업들이 메세나,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메세나'라고 해서 재단은 메세나 코디네이터 역할, 브리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재단에서는 지금 '우리 내기할까요'라는 예술후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자 문화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내부자 문화를 기부자 문화로 바꿔야 한다, 끼리끼리의 문화를 서로서로의 문화로 바꾸자는 취지의 캠페인이죠.

김 해 보 메세나가 최순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오해받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 중 하나가 메세나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일인데, 요즘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죠. 돈의 구체적인 쓰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좋겠죠.

장 해 랑 이 많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야 할까요? 과거의 매거진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거리공연의 경우 동행 취재하면서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재미있게 전달해야 하는데, 문화예술 쪽은 그 부분이 어려워요. 또 인문학 같은 경우는 지식인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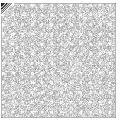
인문학을 대중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면서 인문학 버스킹도 해보고 했지만 접점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EBS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서울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을 맞춰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서로의 가치와 방향이 맞는 쪽으로 추진해나가야겠죠.

주 철 환 하나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 10대 기획 중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메세나가 됐든,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하는'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하나 정해야 해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재생' 키워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죠.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이 관심과 지원을 받기가 수월하니까요.

장 해 랑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하나갈지, 어떻게 펀딩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자주 만나서 구체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소재가 많은데 어디에 힘을 줄 것인가가 중요하죠.

주 철 환 서울문화재단과 EBS가 함께하는 이 프로젝트를 '유네스코' 같은 식으로 교육과 문화가 함께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를 담은, 귀에 익숙한 단어로 만들어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을 쓸게요. 재단은 인터뷰할 기회가 많아요. 그럴 때 교육방송과 서울문화재단 두 기관이 의기투합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죠.

장 해 랑 사실 문화가 곧 삶이죠. 우리는 문화를 공론화할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 들여가며 못했던 건데 이제는 바뀌었거든요. 삶의 현장에 녹아나는 다른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은 삶의 질과 직결된 것,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못했죠. 공영교육방송으로서 교육 신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담보하는 문화현장, 문화현상, 그리고 아이들이 문화를 체험하면서 인성을 넓혀가는 감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제작 능력, 재단이 가진 전문가의 예술



우리가 가진 제작 능력, 재단이 가진 전문가의 예술성과 예술적 역량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EBS가 구현해야 할 가치 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그 부분을 두 대표가 나서서 같이해보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해량 EBS 사장



성과 예술적 역량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10대 과제 중 하나로 문화를 내세울 겁니다. 프로그램 한 개로 시작하더라도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문화독립선언'에 함께할 것입니다. EBS가 구현해야 할 가치 중 하나가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그 부분을 두 대표가 나서서 같이해보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철환 일단 교육, 방송, 문화, 재단이라는 4개의 키워드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 출신으로서 교육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나의 처음과 끝은 교사라는 생각을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에듀케이션(education)은 '에(e) 듀케(ducare)', 즉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주로 집어넣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주입식, 획일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쟁만을 강조하죠. 하지만 협력이 경쟁력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문화경쟁력, 교육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료와 재료를 잘 끄집어내야 하는 거죠. 방송(broadcasting)은 넓게(broad) 뿌리는(cast) 거잖아요. 널리 퍼트려야 하죠. 재단을 알면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건 레퍼토리가 많은데 히트곡이 없는 것과 같아요. 히트곡을 내야만 사람들이 존 재감을 알죠. 화제가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교육과 방송은 사실 저의 삶이에요. 킨치(culture)의 어원은 'cultivate', 즉 배양, 재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죠. 우리는 문화를 즐겨야 합니다. 이기는 삶에서 즐기는 삶으로 가야 해요. 'Culture is agriculture', 즉 문화는 농사예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모내기하고, 가을과 홍수를 다 견뎌낸 뒤 가을에 추수를 해서 벼의 씨앗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남진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 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게 바로 문화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의 지원을 받든 기업에게 지원을 받든 명분이 필요해요. 문화예술의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꽃이 어떻게 꽃밭이 되나요? 꿀벌과 바람의 역할이 있어야 꽃밭이 될 수 있잖아요. 교육, 방송, 문화, 재단의 협력은 어마어마한 교육혁명, 문화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말보다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 친화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하겠죠.

좌담회에서의 뜨거움은 EBS와 서울문화재단의 만남을 통해 2018년부터 전달될 예정이다.

정리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의 기부제휴사업은 설립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니만큼 서울시에서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중심으로 기부와 후원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시민 모금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시민 모금이나 기업의 후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파트너십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민선5기 이후이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기 선거 공약집을 통해 “서울시장이 메세나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제휴 확대를 강조했다.¹⁾

기업 경영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상징하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대체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개념이 출현한 것이다.²⁾ CSV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의 상호조화를 이루는 진정성 있는 기업이 정신이다.³⁾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제휴사업 추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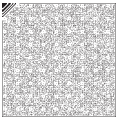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의 파트너십 사례

이런 흐름 속에서 재단은 2012년 ‘메세나 추진TFT’를 조직하고 곧 ‘문화제휴팀’으로 정규 조직화했다. 문화제휴팀을 주축으로 재단은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제휴사업을 추진했다.

초창기 대표 사업으로는 <서울메세나지원사업>과 <서울메세나아츠워크>가 있다.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을 통한 창작지원사업으로, 예술 프로젝트에 기업 기부금과 재단의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2012년 이후 132개의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누적 지원금이 52억 6,400만 원에 달하며 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⁴⁾

특히 2016년 재단은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메세나





무역센터 Special 트랙>을 개설했다. 선정된 예술단체는 한국무역협회의 기부금과 재단의 매칭 지원금뿐 아니라 코엑스 공연장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2016년에는 무료 대관을 2일 제공했으나, 올해는 총 대관 일수를 4일로 늘려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서울메세나아츠워크>는 <서울메세나지원사업>의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로 2012년 시작됐다. 이후 이 행사는 2013년, 예술의 힘과 가치를 서울시민과 나누기 위해 기업, 재단, 예술단체가 함께하는 페스티벌 형태로 발전했다. <광화문 문화기업 “로비를 열고 예술을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광화문에 위치한 4개 기업⁵⁾ 사옥 로비를 개방하고 공연과 전시를 펼쳤다. 그리고 서울역사 박물관 로비와 경희공공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스를 열었다. 그야말로 민관이 협력한 풍성한 문화행사였다.

<서울메세나지원사업>과 <서울메세나아츠워크>를 통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노하우와 자신감을 얻은 재단은 다양한 기업의 사회공헌, 마케팅 담당자와 접촉하며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기존의 문화제휴팀을 대표이사 직속 ‘제휴협력실’로 격상시켜 협력 파트너십 유치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재단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파트너 기업들을 만났다.⁶⁾



- 1 주철환 대표이사와 함께 서울시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올프 아우스트프링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사진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 2-5 <서울메세나 무역센터 Special 트랙>에 선정된 공연들. 마방진 <홍도>, 극단 차이무 <원파인데이>, 연희단거리패 <길 떠나는 가족>, 류장현과 친구들 <갯 잡아 올린 춤>.

- 1) <박원순 후보 정책자료 모음집> p.84, 2011.
- 2) CSV란 기업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행위이다. 이를테면 다국적 식품회사가 아시아 지역 저소득층의 영양 상태를 고려해 영양가 높은 제품을 저가격, 소포장의 보급형 상품으로 출시하는 것이다.
- 3) <트렌드 지식 사전> 김한표, 인물과사상사, 2013.
- 4) 2017년 10월 23일 기준.
- 5) 씨티카드, 금호아시아나, 대우건설, 교보생명.
- 6) 제휴사업의 다양한 사례와 내용은 [문화+서울] 2016년 12월호 '이슈 & 토크'에 수록된 '기부로 '있다', 예술이 비로소 '있다'에 소개되어 있다.

매년 서울시에서는 민관협력 우수 기업 시상식을 개최하는데, 2014년 이후로 재단과 협업한 기업들이 한 해도 빠짐없이 이 상을 수상했다. 여담이지만 재단도 진정성 있게 함께한 기업이 수상할 수 있도록 여러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단순히 기부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기관 대 기관으로 지키는 '의리'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회공헌대상과 명예시민 위촉 등 기업들이 협업 사업 추진을 통한 장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서울문화재단과 협업한 다양한 기업의 외부 수상 내역

표창명	연도	대상	연계사업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2017	한성자동차(주)	드림그림 프로젝트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2017	(주)오토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2016	올림푸스한국(주)	영동한 사진관
서울시 명예시민	2016	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자동차 CEO)	드림그림 프로젝트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사례집 수록	2016	서울문화재단	서울메세나사업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2015	사노파-아벤티스 코리아	초록나무 프로그램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2014	조아제약	프로젝트A (장애 아동 미술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의 시민 기부금 모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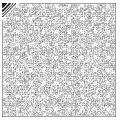
재단은 기업의 기부뿐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는 예술후원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의 소액기부를 통한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타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나, 참여 예술단체가 일정 목표 금액을 달성했을 경우 재단이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장점이 있다.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통한 모금액은 2016년 약 3,242만 원을 돌파했다.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통한 지원 건수와 참여 시민 및 누적 모금액

연도	업로드 프로젝트(건)	참여 시민(명)	모금액(천 원)
2015	15	342	13,116
2016	25	532	32,423
2017	41	327	25,122



재단은 시민에게 예술후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예술후원캠페인을 진행한다. 예술후원캐릭터 '기부로'를 활용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접근으로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기부금을 모금한다. 그리고 CMS와 스마트 모금함⁷⁾ 등 다양한 루트로 기부를 유치하고 있다.



1, 3 2016, 2017년 예술후원 캠페인 모습.
2 최초예술지원사업에 지원한 예술가가 동료 예술가들 앞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 기부금은 소액이지만 말 그대로 티끌 모아 태산이다. 2016년 새로 출범한 <최초예술지원사업>은 수년간 누적된 시민의 기부금을 통해 탄생했다.⁸⁾ 올해에는 정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의 수혜자는 2016년 54명에서 2017년 620명(예산 기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민의 기부금이 청년예술가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성

재단이 기업과 협업하는 방식은 명확하다. ‘갑과 을’이 아닌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제휴사업의 유의미한 성과가 쌓이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가 늘면서 재단에 협업을 제안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감사한 일이지만 재단을 일종의 대행사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돌아보면 기업과 재단의 담당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방향을 고민하며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치열함이 있었다. 이 치열함 자체가 파트너십의 원리이다.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파트너십 성공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기업 욕구

에 대한 이해와 신속한 대응, 둘째, 전문 역량, 셋째,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성이다.⁹⁾ 재단의 제휴사업은 위의 요인을 모두 만족시켰고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부한다.

최근 기부금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이슈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기부 활동이 많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재단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올해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했고 어떤 기업은 내년에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재단과 함께한 수많은 파트너 기업들, 그리고 작은 티끌이었지만 태산을 이뤄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많은 시민 기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글 이승주, 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실 사진 서울문화재단

7) 카드 결제로 기부할 수 있는 모금함으로 현재 시민청, 서울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에 있다.

8) 최초예술지원사업은 ‘예술가(단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에서 가장 앞에 위치한 사업으로 공공 지원금 수혜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다. 정산과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가 없고, 함께 사업에 참여한 동료의 평가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는 수평적인 지원 구조로 화제를 모았다.

9) <기업과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파트너십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에 대한 탐색>, 방대욱 외,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3년, 15권, 3호, pp.217~241.



예술계 펀드레이징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바람직한 기부관계 형성을 위하여



예술계 기부의 장벽

당장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근본적으로 예술계에는 펀드레이징의 한계가 존재한다. 기부자가 기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공감(empathy)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술계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힘든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예술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예술가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인식이다. 경제구조의 문제라든가 사회안전망의 미비 등으로 기존 질서에서 밀려나와 어쩔 수 없이 예술을 하게 된 건 아니다. 예술가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일이고 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당연히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다.

최근 '이영학 사건', '불우아동 기부금 횡령 사건' 등 기부금과 관련된 불쾌한 소식들이 이어졌다. 금액과 상관없이 소중한 기부금을 흔쾌히 제공해왔던 기부자들의 신뢰를 짓밟는 사건들이다. 브라질에서의 나비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나비효과처럼, 모금 영역의 신뢰 위기는 예술계 펀드레이징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모금에 관심을 두었던 예술단체들은 앞으로 예술계 기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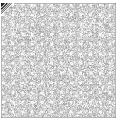
둘째, 설령 도와주려고 해도 예술계 내에 너무 큰 편차가 존재한다. 부유한 장르, 가난한 장르가 있는가 하면, 같은 장르에서도 성공해서 부유하게 사는 예술가가 있는 반면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예술가도 있다. 어느 분야, 어떤 예술가를 도와줘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노숙인은 큰 편차 없이 도와줄 만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외제차를 모는 노숙인이 있고 지하도에서 잠을 자야 하는 노숙인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셋째, 예술계에 대한 공공지원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적으로 예술을 보호·육성의 대상으로 천명하고 있고, 국가 등 공공영역에서 예술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인이나 기업이 별도로 기부금을 내야 하는가이다.

넷째, 예술계에 대한 지원이 불우이웃, 환경보호, 재난 등의 영역만큼 절박하지 않다.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기부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하고 절실한 영역이 우선되어야 하며, 예술계는 그 순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상호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예술에 대한 기부를 얘기할 때 공감보다는 싸늘한 반응을 만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예술계는 공공의 지원금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모금영역에서 개인, 기업을 포함하여 정부 등 공공영역도 당연히 모금의 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예술계가 정책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정부(지자체 포함) 등 공공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유치에 성공한 28개의 예술단체를 직접 인터뷰해보니 대부분의 예술단체 대표들은 공공영역의 지원을



1, 2 작년 12월에 열린 '서울문화재단 예술 후원의 밤'.

가장 필요로 하고 우선시했다. 공공영역은 지원을 받은 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공모 요건에 맞춰 지원 신청을 해 선정만 된다면, 그 후에는 예술적인 면에만 집중하면 된다. 반면에 기부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구걸하는 느낌이 들거나, 신세를 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기부 요청을 하지만, 공공지원금만 확보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만큼 기부금 유치에 대해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단원들과의 의견 차이로 내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의 가치, 기부로 이어지다

그렇다면 굳이 예술계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기부 유치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공의 지원금도 한계에 달하고 있어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면 예술계에서의 생존은 담보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 등 공공영역은 당해 연도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매년 보장되지 않는 공모에 지원해야 한다. 그것도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그나마 그 해에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선정되지 않으면 그 해 사업은 접어야 하는 경우

도 많다.

반면에 개인이나 기업과 기부를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기부 효과의 지속적이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으므로 한 번의 기부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원하던 단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바꿀 가능성도 낮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예술단체들이 공공영역의 지원금 외에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의 기부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예술계가 여러 형태로 재원 조성하고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술 분야 공공기관에서도 포럼과 같은 공동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예술계의 재원 조성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이미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월드비전이나 세이브더칠드런 등과 같은 모금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이미 언급한 예술계의 제한적 요소를 감안하여 기업이나 대중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술 자체의 가치를 계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계 펀드레이징을 돕고 있는 모금영역의 전문가들에게 '예술계가 갖고 있는 장벽'을 이해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모금영역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예술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모금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예술계 내부도 '이제는 공공영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기부관계만 형성된다면 개인이나 기업은 공공영역에 비해서 훨씬 예측 가능하며, 재원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잠재 기부자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꾸준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부 요청은 결코 구걸이 아니며, 잠재 기부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모금의 본질적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술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면서 예술을 사랑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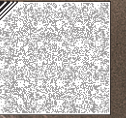
글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재휴협력실장, CFRE(국제공인기금조성전문가) 사진 서울문화재단

작곡가 진은숙

‘미래의 걸작’과 만남 시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이 아시아인 최초로 ‘비후리 시벨리우스 음악상’을 수상했다. 2004년 그라메마이어상, 2005년 쇤베르크상에 이어 올해 시벨리우스 음악상을 수상하며 소위 작곡상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셈이다. 지난 11월, 베를린 필하모닉과 신작 〈코로스 코르돈〉의 세계 초연을 앞두고 있던 진은숙 작곡가를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11월 3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드레스 리허설은 투어로 홀을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멈춘 사람들로 붐볐다. 100여 명은 죽히 되어 보이는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진은숙의 신작 <코로스 코르 돈>('현의 춤'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 막 걸음마를 댄 아이를 품에 안은 여성이 눈에 띄었다. 지휘봉을 흉내 낸 듯한 막대기를 손에 쥔 아이부터, 백발의 할머니까지 모두들 숨죽이고 그녀의 신작에 귀를 기울였다. 미세한 먼지 입자를 묘사한 패시지¹⁾로 난이도가 높은 이 곡의 세계 초연을 위해, 현 파트는 쉬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연습에 돌입했다. 객석에 앉은 이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진지하게 음악을 섬기는 독일 특유의 분위기일까. 진은숙이 충보를 들고 무대에 올라 사이먼 래틀 옆에서 몇몇 지시사항들을 유창한 독일어로 전달할 때마다 대부분의 베를리너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무대 위에서 오가는 단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기이할 정도로 열띤 집중이었다.

작곡상의 그랜드 슬램 달성

이르캄(IRCAM-현대전자음악연구소)이 있는 파리와는 또 다른 분위기와 집중인 것 같다고 하자, 진은숙 작곡가는 답했다. “여기 사람들이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원래 그래요. 음악을 귀하게 여긴다고 할까.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죠. 음악을 듣는다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요.” 돈을 내지 않고 리허설을 보러 온 사람들이니 느슨하게 행동할 법도 한 게 아닐까, 하는 우문에 현답을 내놓는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표를 못 구했으니 여기에서라도 열심히 듣고 가자는 식으로 연주에 집중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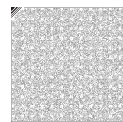
진은숙은 2004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음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라베마이어상을 수상했고 이어서 2005년에는 쇤베르크상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초에는 시벨리우스상을 받아 작곡상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원래 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편이에요. 당연히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작품만을 쓰겠다는 결심을 하고 작곡가가 되었어요. 철저하게 그 결심을 들여다보며, 채찍질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에요. 곡을 쓸 때마다 스스로를 벌레나 먼지처럼 하찮은 존재로 느껴요. 어느 정도 경협치가 쌓이지 않았냐고요? 전혀. 곡마다 늘 0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항상 새로워야 한다는 강박으로 한없이 자학하고 뉘달해요. 제가 모차르트 같은 천재도 아니고, 이렇게 치열하고 혹독하게 스스로를 극한까지 밀어붙여야만 그나마



들어줄 만하게 나와요.”

‘발트해의 아가씨’라 불리는 헬싱키 구석구석에서 시벨리우스의 위상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라 핀란드에서 시벨리우스상을 받은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달라고 졸랐다. “사실 지난해 12월에 연락을 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10개월 가까이 혼자 엠바고(embargo)를 지켰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헬싱키에서 상을 받는데, 핀란드 사람들이 <핀란드 디아>를 작곡한 그들의 작곡가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표하는지, 수상보다 오히려 그 지점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시벨리우스를 기리고, 작곡가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하는 상이라 마음이 훈훈해지더군요. 또 아시아인이고 여자니까, 핀란드의 시벨리우스를 계승했다고 하기에는 참 멀리에서 온 거죠. 물리적 거리는 물론 사회적, 인종적, 역사적으로 봐도 저는 ‘작곡가’라는 타이틀이 아니면 시벨리우스와 접점을 찾기가 힘든 수상자 중 한 명일 거예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작곡가’로 편견 없이 대해주었던 분위기가 기억에 남아요. 요 근래 음악 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좋은 음악을 써내겠다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10개월 가까이 혼자 수상 사실을 알고 있다가 담담하게 시상식에 다녀온 그녀가 덧붙였다. “음악평론가인 언니(진희숙)에게도 수상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받고 나서도 따로 연락하지 않아서 언니도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누가 말해주어서 알았다고 해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만큼 요란법석 떠는 걸 질색하는 성격이에요. 상을 받는다고 제가 신작을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들거나,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1, 2 지난 11월 3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필하모닉이 진은숙의 신작 <코로스 코르돈>을 세계 초연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신작 초연

보통 진은숙의 작품은 세계 초연과 한국 초연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 한국 공연계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진은숙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 <기계적 환상곡>(Fantaisie mécanique, 1994)은 세계 초연 이후 22년이 지나고 나서야 지난해 파리의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Ensemble InterContem-porain)의 첫 내한공연을 통해 비로소 국내 청중들과 만났다. 스트라빈스키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들을 출판하던 출판사 '부지 앤 후크스' 소속으로 현존 작곡가 중에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진은숙이기도 하고, 극한의 정교함과 난이도를 요구하는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제대로 작품을 소화해낼 연주력을 갖춘 오케스트라나 현대음악 전문 앙상블도 손에 꼽는다.

2013년 6월, 독일 쾰른에서 무지크 파브릭의 관현악곡 <그래피티> 독일 초연을 앞두고 공연장을 향하는데, 우연히 하피스트와 마주쳤다. 동양 여자인 나에게 “혹시 당신이 진은숙인가요?”라며 하피스트는 대답할 새도 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당신의 곡은 정말 어렵고, 한번에 연주해내기는 불가능하며, 도전하듯 술하게 연습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음악이 완성되면서, 평생 하프만 하면서도 몰랐던 내 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말 기쁘고 행

복하다”라며 웃어 보였다.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의 수석 첼리스트로서, 1990년대 진은숙의 세계 초연에 한몫을 했던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는 “진은숙의 음악이 위대한 걸작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다. <기계적 환상곡> 악보를 받아보자마자,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외계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대한 돌비석 앞에서 고개 숙여 절하는 장면처럼 그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싶어졌다. 앙상블 단원들 모두 압도되었다. 10년 넘게 현대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며 신작을 수없이 접했지만, 진은숙만큼 독특하고 강렬한 에너지로 우리를 사로잡은 작곡가는 없었다. 마법사처럼 템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엄청난 거인이 다른 차원에서 빛어낸 작품 같은 놀라운 에너지가 있다. 첼로 협주곡은 21세기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남을 것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베를린 필하모닉 재단에서 직접 위촉하는 작곡가로서, 11월 3일 베를린에 이어, 11월 20일 한국에서의 초연을 앞둔 시점에서 그의 기분은 어떨까 궁금했다.

“아주 큰 영광이죠. 처음 위촉이 왔을 때는 5분 정도의 짧은 곡이었

1) 음악에서 독립된 발상을 하지 않고 선율 사이에서 빠르게 상행 또는 하행하는 경과적인 악구.

어요. 쓰다 보니 늘어나서 11분이나 된 것도 양해를 해줬어요. 베를린 필하모닉과 자주 작업하지만, 늘 놀라는 지점은 단원들의 태도예요. 모두가 세계 최고의 솔로리스트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함께 제가 의견을 피력하면, 최대한 맞춰주고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죠. 파트 연습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 음악을 실현해주고자 애쓰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제 머릿속 아이디어에 비하면, 아쉬움은 있어요. 그건 늘 그래요.” 작곡상 그랜드 슬램뿐만 아니라 유럽 최고의 루체른 페스티벌 상임 작곡가는 물론, 유럽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뉴욕필, LA필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이 쏟아져 작품 쓸 시간이 부족한 그에게도 세계 초연은 긴장되는 순간일까. “첫 리허설을 앞두고부터 계속 불안에 떨어요. 초연은 실패할 수도 있죠. <피아노 에튀드 1번>이 생각나네요. 위촉을 받고 열심히 써서 연주자에게 전달했는데, 공연을 열흘도 남겨두지 않고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너무 어렵다며 포기를 선언했어요. 핑크는 낼 수 없어 간신히 대타를 구했는데, 악보를 따라가기에만 급급해서 1분 50초짜리 곡을 9분 넘게 연주했어요. 지금은 웃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견디기 어려웠던 9분 남짓이었어요. 이번에도 제 곡이 스트라빈스키와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사이에 낀 샌드위치처럼 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네요.”

진은숙의 우려와는 달리, 공연을 앞두고 만난 베를린 필하모닉의 플루트 수석 엠마누엘 파위는 신작에 대해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전작들보다 더욱 신비롭고, 실험적이다.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고 무한을 연상케 한다. 진은숙은 우리와 자주 작업하는 몇 안 되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이미 바이올린과 첼로로 경이로운 협주곡을 우리와 함께했는데, 연주하면서 곡이 훌륭하기도 했지만 이런 새로운 협주곡이 생겨났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다. 플루트는 레퍼토리가 많지 않은 악기다. 진은숙은 언제나 악기에서 새로운 소리를 이끌어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음향적으로 아주 먼 우주에서 온 듯한 느낌이 든다. 동양의 악기 소리를 차용했던 드뷔시의 다채로운 음악은 물론, 스트라빈스키와의 접점도 엿보인다. 매우 정교한 스타일이 그렇다. 마치 씨줄과 날줄을 엮어 직조한 직물처럼, 손에 당장이라도 만져질 듯한 질감이 있는 곡이다.”

11월 3일 저녁, 베를린 필하모닉이 들려준 진은숙의 신작 <코로스 코르돈>은 형형색색의 아지랑이처럼 미묘한 뉘앙스로 다채롭게 빛났다. 그녀가 어째서 베를린 필하모닉의 선택을 받았는지 증명해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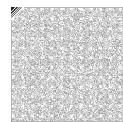


“진심으로 앞으로 더 많은 후배 작곡가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창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래야 음악이, 예술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었다. “다행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진은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곡을 시작하기 전까지 오래 걸리고 막상 첫 음이 시작되고 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 천문학책이나 수학책, 시를 자주 읽어요. 일상에서도 영감은 늘 떠올라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요소들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요리도 그렇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깨끗하게 닦여나가는 접시를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예요. 어떤 과정인지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어두었다가, 그걸 나중에 제대로 하나로 엮어내는 건 맞습니다. 단순한 나열 혹은 조립은 결코 아니예요. 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후배들을 위한 행보

2012년 3월, 현대음악 최전선 오를레앙 피아노 콩쿠르 측에서 진은숙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그녀의 이름을 딴 ‘진은숙상’을 제정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진은숙은 “나 대신 ‘윤이상상’을 만들고 싶다”며



2년마다 열리는 콩쿠르에 상금 2,000유로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놀란 건 오히려 콩쿠르 측이었다. 1995년 11월, 베를린에서 작고한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진은숙이 사비를 내놓은 이유가 궁금했다.

“윤이상 선생님 덕에 강석희 선생님이 존재할 수 있었고, 독일에서 막 돌아온 강석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의도를 감춘 채 불투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곡가인 제가 윤이상 선생님을 두고 ‘훌륭한 작곡가’라고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들지 않아요. 윤이상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었던 사이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출신 작곡가로 세계 음악계에 처음 그 자취를 드러낸 분이고, 독일에 정착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한국사람인 저를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가가 훌륭한 음악가를 두고 훌륭하다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윤이상의 성취와 업적을 재평가했다가, 나중에는 금기처럼 여겨지면서 배제되기도 했다. 예술가에게 어떤 이미지를 덧씌웠을 때 얻어지는 것이 있고 그걸 이용하려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 예술에 굴절된 시선이 덧씌워지며 일어난 일이었다.

“저는 젊은 작곡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도제식으로 가르침을 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르스노바(서울시립교향악단의 현대음악 프로그램)에서 연간 4번의 공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료로 진행되는 마스터클래스예요. 지원자를 받아서 제가 최대한 작품을 직접 보고 조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아르스노바는 지난 11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차세대 작곡가로 손꼽히는 김택수가 그중 가장 먼저 파리 앙상블 앵테르콩탱포랭의 위촉을 받으며 두각을 보였다. “저에게 오는 위촉을 다 수락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저는 후배 작곡가들을 추천해왔어요. 저는 맨땅에 혼자 길을 내면서 걸어왔지만 후배들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이어야죠. 진심으로 앞으로 더 많은 후배 작곡가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창작 활동이 활발해져야, 새로운 음악이 자꾸 나와야 그중에서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을 걸작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창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래야 음악이, 예술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제 작품이야 시간이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이고, 곡을 쓰는 것 말고 커리어에 도움될 만한 행보에만 집중한다고 명성이나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예술가는 창작하는 사람이고, 본질인 창작에 집중하고 그걸 제대로 해내면 나머지가 주어지더군요.”

한국 클래식 음악을 이끄는 현대음악의 거장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유럽 최고의 종합 예술축제인 ‘파리 가을 축제’에서 진은숙을 주요 아티스트로 소개했다. 파리 가을축제의 총감독이자, 테아트르 드 라 빌의 극장장을 겸하고 있는 연출가 에마뉘엘 드마르시-모타는 “음악을 모르는 내가 앞으로 그 세계를 더 깊이 있게 알아나가고 싶어질 만큼 놀라웠다. 작곡가 진은숙을 우리의 플랫폼에서 소개했다는 것이 뿌듯하다”며 진은숙의 첼로 협주곡의 1악장 부제인 판소리 용어 ‘아니리’의 정의를 자세히 물었다. 아르스노바를 거쳐 퐁피두센터와 파리 오페라 등의 장소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재불 작곡가 조현화는 당시의 공연을 회상했다. “2015년 가을 <구갈론>을 듣고 다음날 동이 트도록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은숙이 얼마나 큰 거장인지, 그 에너지에 꼼짝없이 압도되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정말 큰 어른입니다. 작곡가들은 자기 세계 안에 갇히기가 쉬운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 도시를 오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대기실에서, 공항에서, 택시 안에서 이메일을 써서 곡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작곡가들에게 정서적인 멘토링까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이미 1990년대부터 소리 없이 서울대 작곡과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들려주셨습니다. 진은숙 이후의 한국 출신 작곡가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그 그늘 안에 있고, 그 이름에 큰 빛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새롭고 경이로우며 극도로 정교한 진은숙의 음악을 마주하고 나면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압도당한다. 음악은 높고 귀하고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며, 그런 음악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새로운 차원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는 듯한, 자아의 외피를 둘러싸고 있던 껍질을 깨고 새로 거듭나는 듯한 짜릿한 육체적 경험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진은숙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온몸으로 기억할, ‘미래의 걸작’과 만나게 될 것이다.

글 김나희, 클래식 음악평론가 사진 백종현

영화평론가 최재훈

“평가를
정직한 언어로
읽어주고 싶다”





지난 11월 열린 ‘제37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장평 〈성기가 향한 길, 끝_김기덕 작가론〉과 단평 〈꿈의 제인〉을 쓴 최재훈 평론가가 신인평론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45세라는 늦은 나이에 신인상을 수상한 그는 이제 막 입봉한 신인 평론가지만, 알고 보면 연극, 오페라, 무용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베테랑이다. 영화평론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들어선 최재훈 평론가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개인의 생존을 내포하고 있고, 보편적 정서에 가닿는 길도 찾았다. 그래서 성기가 가리키던 길 끝, 헤르메가 길을 안내하지 않아도 이야기의 길은 쉬 끝나지 않는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동안이 아니라, 영화가 끝나 일어나는 순간, 더 많은 김기덕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종착역에 도착했다고 안내를 받는 순간, 그 길에 선 순간, 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지난 11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7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이하 ‘영평상’)에서 신인평론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재훈 평론가의 김기덕 작가론에 관한 평론의 일부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영평상’은 영화평론가와 영화 관련 언론인들이 그 해의 우수한 영화와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재훈 평론가가 수상한 ‘신인평론상’은 영화비평의 활성화와 신인평론가 발굴을 위해 공모(公募)를 통해 진행되며, 안승범(한신대 조교수,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사무국장), 박우성(한국영화평론가협회 출판이사, 영화지 스태프 평론가) 등 총 10명의 평론가를 배출했다.

최재훈 평론가는 장평 〈성기가 향한 길, 끝_김기덕 작가론〉과 단평 〈꿈의 제인〉으로 신인평론상 최우수상에 당선됐다. 심사를 맡은 이현경 영화평론가는 “최재훈의 평론 2편 모두 안정적인 문장력이 돋보였으며 영화보다 이론을 우위에 두는 흔한 우를 범하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언어와 감성으로 일관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글에 김기덕 감독의 작품에 대한 오랜 애정과 탐구를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최재훈은 정재형, 송효정, 이현경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고른 지지를 받아 비교적 수월하게 당선이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45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신인상을 수상한 최재훈 평론가는 “협회에서도 나이를 듣고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멋쩍어했지만, 실제로 그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히려 주인 잃은 신발이 제짝을 찾았다고 할까. 연극, 오페라, 무용 등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연예술계 경력만 봐도 그렇다.

우선 수상을 축하한다. 소감이 어떤가?

처음 영화관이라는 곳에 갔을 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의 극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스크린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좀 시끄러웠는데, 객석에 불이 꺼지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도 극장을 가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처음 당선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 꺼진 객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채널에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론을 해왔다. 어떤 계기로 평론을 하게 되었나?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다. 재학 시절에 딱 3번 공모전에 지원했는데, 모두 최종심 후보에만 오르고 당선되지 않았다.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잡지에 소설을 연재했는데, 그 글을 보고 잡지사에서 영화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평론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일상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에세이였다. 삶과 영화를 연결 지어 글을 써야 했기 때문에 영화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다.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는데, 굳이 이번 ‘영평상’ 신인평론상 공모에 응모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글을 쓸 수 없는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6개월쯤 글을 쓰지 않으니깐요청이 푹 끊겼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글을 쓴다는 것은 지키고 싶은 자존심 같은 거였다. 글을 다시 쓰고 싶어 각종 매체에 연락을 했다. 눈에 띄 만한 타이틀을 요구하는 곳이 많았다. 등단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인정받는 필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전에도 영화평론을 해왔는데, 이번 수상의 의미는 이전과 어떻게 다른가?

‘등단’을 하게 되었으니, 정식으로 인정받은 느낌이다. 영화평론가로서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영화평론가로서 활동을 해야겠지만, 일도 계속하고 싶다. 도전을 했고, 원하던 것을 이뤘다는 성취감 때문에 한 계단쯤 더 올라선 기분이다.

“영상을 또박또박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자신만의 평론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비평을 하라고 하면, 비판을 하거나 지식과 이론을 작품에 억지로 가져다 붙이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

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영화평론은 자신의 관심사나 편견으로 살을 붙였다 깎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언어를 독자들에게 글로 다시 풀어 또박또박 읽어가며 그 의미를 되짚어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직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오독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영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는 평론가가 되고 싶다.

평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김기덕에 대한 애증을 느꼈다. 그 많은 텍스트 중 김기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김기덕 감독은 영화계 폭력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작품들을 폄하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김기덕의 영화를 보긴 했을까 싶었다. 김기덕 감독의 작품은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고전소설 같다. 김기덕이라는 사람이 아닌,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를 되짚어 읽어주고 싶었다.

영화 <꿈의 제인>도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불행하고 ‘마이너한’ 소재의 작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나?

나쁜 예술의 힘을 믿는다. 잔인하게 생채기를 내는, 무례하고 어두운 예술을 좋아한다. 상처 난 살갗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나쁜 감성을 대신 표현해주는 것이 예술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오해할 수 있어서 덧붙이자면 나쁜 예술은 나쁜 영향을 주는 예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상처받아서 거칠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내가 말하는 나쁜 예술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는다.

국립오페라단과 서울문화재단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했다. 문화예술계 경력이 영화평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연극을 전공했고, 오페라와 시각예술, 무용예술과 인연을 맺었다. 예술가를 지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고 친분을 쌓아왔다. 내가 쓰는 글에도 각 장르 예술의 특성이 알게 모르게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인문학으로서의 극작, 텍스트인 것 같다.

45세라는 늦은 나이에 영화평론계에 데뷔한 셈이다.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젊은 시절에 시작했다면 놓쳤을 많은 것들을 품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늘 친구들에 비해 한 박자씩 늦



- 1 영평상에서 신인평론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재훈 평론가의 상패.
- 2 시각예술과 무용예술가의 협업 프로그램인 <Colla報(콜라보)>. 콜라보를 널리 알린다는 중의적 의미를 띤다.
- 3 <댄스토리 서울(Danstory Seoul)>은 댄스와 스토리의 합성어로, 사진과 무용의 협업을 통해 서울을 이야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기안마르코 브레사돌라와 열혈예술청년단이 함께했으며 사진집 발간과 사진 전시가 이어졌다.
- 4 댄스필름 제작 아카데미 참가자들의 티저 영상을 심의, 댄스필름 제작 지원금과 제작 여건을 제공해 호평받았다.

예술이 향하는 곳,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기본을 이해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하고 싶은 말은?

직장인 평론가다 보니 한쪽에 조금만 소홀해도 이도저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 쉬울 것 같다. 기회를 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주고 싶고,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인정받고 싶다. 무엇보다 다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가장 행복하다. 원고 의뢰가 아주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웃음)

최재훈은 1972년 부산 출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을 졸업했다. 국립오페라단 공연기획팀 팀장과 국내 최초 무용전문 창작공간인 서울무용센터에서 매니저를 역임했다. 그는 무용사진영상전 <댄스토리 서울(Danstory Seoul)>, 무용과 타 장르 예술과의 협업 프로젝트 <Colla報(콜라보)> 등 무용예술을 영상언어로 확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각종 매체에 문화예술 칼럼과 에세이를 써왔다.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었다. 막연히 글을 쓰고 싶어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좀 늦게 들어갔고, 다시 공연이 하고 싶어서 오페라단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입사한 친구에 비해 나이가 많았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뻔한 얘기지만 쉬운 건 아닌 다짐을 마음에 품고 산다.

영화평론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글을 많이 쓴다고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에도 단련이 필요하다. 많이 보는 것만큼,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단순히 끼적거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쌓여 필력이 된다. 영화는 타 장르 예술의 장점들을 흡수하면서 성장해왔다. 인문학은 물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해야 한다. 더불어 결국

2017 청년예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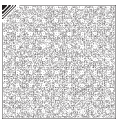
서울시 청년예술가 지원정책 돌아보기



포럼에 참여한 오창민, 천샘, 백소망, 강한, 임나래(왼쪽부터).

사회	오창민 협동조합 성복신나
발제	김태희 연극평론가,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토론	천샘 오후의 예술공방 대표(2017 최초예술지원 참여 예술가) 임나래 독립기획자(2017 최초예술지원 참여 예술가) 백소망 아마씨 보컬(2017 서울청년예술단 참여 예술가) 강한 스튜디오 사기꾼 대표(2017 서울청년예술단 참여 예술가)
일시	2017년 11월 14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주최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가네트워크

※ '2017 청년예술포럼-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의 새로운 모색' 토론 내용 중 일부를 담았습니다.



‘2017 청년예술포럼’은 서울문화재단과 청년예술가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이다. 11월 14일 진행된 첫 번째 포럼은 서울시의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올 한 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은 크게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지원’ 사업과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서울청년예술단’ 두 가지다. 올해 첫 삼을 뜬 이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이후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전략과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허심탄화하게 얘기를 나누보았다.

발제 실패와 지속을 위한 ‘최초’가 되길

김태희 연극평론가

저는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사업 연극 분야 심사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심사를 하면서 느낀 단상과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연극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덕분에 1년 내내 신진,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비로소 다양한 트랙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첫 해라 미숙한 지점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나름대로 고민해보았는데, 예전에 예술 관련 학교를 졸업하고 살아남은 젊은 세대 연극인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한두 작품을 올리고 나면 지원사업이든 뭐든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한두 작품을 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인상 깊었어요. 올해 최초예술지원은 졸업 직후 기성 예술계로 진입하지 못한, 한 번도 지원사업 혜택을 보지 못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 시기의 예술가들을 꼭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초예술지원’은 창작준비형과 창작발표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창작준비형은 정산과정을 간소화해서 시상금 형식으로 정액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기획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단계,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을 지원해주었어요. 창작발표형은 공연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 지원사업이에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했고요.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심사위원으로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1차 공모와 2차 공모를 거치면서 심사 방식도 발전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김태희
연극평론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최초예술지원은 ‘지원은 곧 실패를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본 작품 중에서 강보를 연출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라는 연극이 참 좋았어요. 강보를 연출은 예술 관련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기성 연극계와는 거리가 있는 연극인인데, 웹진 <연극인>과의 인터뷰¹⁾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입봉작을 최초예술지원사업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실패를 많이 경험한 작업”이었다고요. 단순히 작품의 질 문제가 아니라 300만 원으로 하던 작품에 1,300만 원이 들어가고, 동아리에서 친구들끼리 알음알음 하던 작업이 거대한 프로덕션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의 연속이었겠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실패를 해야지만 기성 연극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지원사업은 작품 하나를 성공적으로 올리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사업을 잘 다듬어나가면 청년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제 서울.청년.예술.단.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저는 다원예술 분야 대표 멘토로 활동했던 ‘서울청년예술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정책 설계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청년.예술.단.’ 이 네 단어

1) 웹진 <연극인>, 2017. 10. 12. Vol. 125. 청년 예술가를 만나다 ② 연출가 강보름 & 김은정.

를 곁들여보면 이 사업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정책 목적과 대상은 ‘서울예술인플랜’에서 시작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크게 ‘청년’ 영역으로 펼쳐진 것이 서울시의 ‘서울청년예술단’과 서울문화재단의 ‘최초예술지원’입니다. 시민들의 향유보다는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서울청년예술단은 20~35세, 3인 이상 청년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중빙 가능한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자로 단원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고 2017년에 타 공공지원사업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예술지원 프로젝트는 ‘얼마나 우수한 프로젝트인지’가 심사 기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예술생태계 안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냐’라는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창작활동비와 사업비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 단체 구성원들에게 10개월 동안 창작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사업비 명목으로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실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0개월 동안 80회 이상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이 일괄 지급되었고요, 직접지원 외에 멘토를 통한 간접지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청년예술단과 멘토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한 번도 1년 스케줄을 고민해본 적이 없었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자기 내러티브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였습니다. “기성 예술계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기주도성을 갖는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고 나니 사회를 구성하는 예술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개개인이 희미해지지 않고 살아 있는 집단 꾸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 진행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술현장, 하나는 사업운영 측면입니다. 예술현장에서 이 사업이 싫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해이기 때문에 현장의 이해도가 달랐습니다. 분명 10개월 사업인데, 우리 프로젝트는 3개월만 하면 끝난데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의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예술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서울청년예술단 때문에 젊은 예술가들이 기성 예술단체에 들어가서 준단원 역할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팀을 꾸리고 있어 기성 단체들이 신입단원을 모집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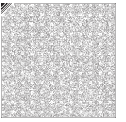
오성화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 운영 측면에서는 오류가 나왔습니다. 선택하는 위치에 있는 심사위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누구를 수혜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일치가 어려웠습니다. 멘토의 역할에 대한 합의된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아 어떤 멘토들은 힘들어했고 예술단원들이 멘토를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수행의 중간조직 부재’는 앞의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사업 설계 때부터 수행을 도와줄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유는 사무국에 들어갈 비용을 아껴 청년예술단원에게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없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처음 사업 공지가 나왔을 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패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청년예술단이 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극 쪽에서 항의를 해서 결국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청년예술단이 보조적인 역할의 예술가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자기 작업을 하는 예술가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의 이야기

오창민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을 들여다보니 기본적으로는 ‘예술인’ 정책인 동시에 ‘청년’ 지원정책이기도 하더라고요. ‘청년예술가’라는 독특한 정체성과 자격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서울청년예술단과 ‘최초예술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진행된 사업이 어땠는지,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지원사업에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 샘 저는 '오후의 예술공방'이라는 예술가들을 위한 인문학 스터디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무용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백 소 망 저는 올해 서울청년예술단 전통 분야에 선정되어서 '아마씨'라는 팀으로 활동하며 앨범을 제작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앨범이 나옵니다.

강 한 저희는 '사적인 기술을 가진 끈들'이라는 의미의 '스튜디오 사기꾼'이고요. 극사실주의 연기를 지향하는 배우 집단입니다. 올해 서울청년예술단에 선정되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라이팩트 프로젝트'(Lifact Project)라고 'Life'와 'Act'를 합쳐서 '삶을 연기하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세 가지 이슈를 하나의 극으로 묶어내는 <마지막 자장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용산 참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에게 있었던 일들과 낙태아들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전시하는 동시에 음악극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 나 래 저는 올해 최초예술지원 2차 공모 시각 분야 창작발표형에 선정되어 <현재전시: Speaking Text>라는 프로젝트로 작가 5명과 함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독립기획자입니다.

오 창 민 제가 올해 사업에 참여한 몇몇 팀을 만나보았는데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원사업의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었는지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창민
협동조합 성북신나



천 샘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현대무용에서 짙은 문제점은 현대인들의 신체언어가 스마트폰에 의해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체언어를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현대무용에 '즉흥'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춤인데요. 프로 무용수와 말보다 신체언어가 먼저인 36개월 미만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팀을 만들어서 4개월간 즉흥무용연구를 진행했어요. 저는 창작준비형을 신청했는데요. 4개월간 진행하면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어요. 4개월 동안 일주일도 쉬지 않고 했는데 솔직히 찬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본 공연을 올릴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하지만 결과를 떠나 4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실패는 했지만 여러 가능성을 느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백 소 망 '아마씨'는 전통 분야에서 창작국악을 하는 팀인데요. 올해 1월 결성되었는데 같은 해 12월에 1집 앨범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 있는 작업이거든요. 1~2년 꼬박 열심히 활동하고 돈을 모아도 부족해서 크라우드펀딩을 받아 앨범을 내는 동료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희는 서울청년예술단이 되면서 빠르게 앨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업에 데드라인이 없었다면 앨범을 만들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12월 31일이라는 사업 종료 시점 안에 앨범을 무조건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계속 고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잘 타협해서 녹음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물을 올해 안에 내고 이 앨범으로 내년에 기획공연을 하거나 다른 사업에 지원해보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 사업이 없었다면 앨범 작업은 커녕 몇 곡 만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먹고사는 문제가 크다 보니 다른 활동들을 했겠죠. 좋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한 저희는 메소드(method)를 지향하는 배우 집단인데요. '라이팩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메소드를 제대로 공론화하고 잘못된 개념들을 바로잡고, 방법론적인 접근이 탄탄하지 못한 배우들을 재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3개월 동안 주 2회 메소드 워크숍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오디션을 진행하고 최종 선발된 인원들과 일주일간 연극을 올리는 것까지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점은 주변에 뜻이 맞는 한두 명의 친구들과 스튜디오 했다면 하지 못했을 공론화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도 받았고 홍보마케팅에 투여

할 여력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제대로 갖춰서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라이팩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배우들에게서 호응을 받았고요, 다른 사람들도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내년에도 자체 기획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 나 래 최초예술지원 대면심사에서 심사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갓 대학 졸업해서 아등바등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더 젊은 예술가도 있는데, 왜 당신이 받아야 하느냐. 저는 그들에 비하면 몇 줄 더 이력이 있었고 2~3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집행하거나 참여했던 경력이 있어요. 창작발표형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지원금이 평균 700만 원, 최대 1,500만 원이니 그에 비해 많은 금액이긴 하죠. 예전에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나의 프로젝트, 나의 활동이 아니라 사용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최초예술지원이 좋았던 부분은 이것을 기획로 공공 지원을 받아서 처음 전시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고요. 저도 처음으로 작가와 같이 단독 프로젝트를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예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비슷한 활동을 해온 예술가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같이해볼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더 큰 단위의 지원사업도 있지만, 지원하려고 하면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늘 되는 작가나 기획자들과 내가 경쟁해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어요. 최초예술지원은 취지에 맞다면 세련된 기획서보다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기획서를 좀 더 응원해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도 기획자나 예술가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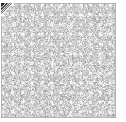
오 창 민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나오는 얘기는 심사는 공정했나, 최대 1,500만 원 받는 팀은 왜 없느냐, 지원금을 깎아놓고 이 금액으로라도 하겠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 정도인데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 나 래 저희가 1,500만 원을 신청했지만 750만 원을 지원받고 작가 5명과 전시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지원할 때 평균적으로 1/n 해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기획에 어느 정도 맞춰서 산정해주었으면 합니다. 최초예술지원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기획자나 평론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년예술작가지원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변 작가들과 같이 얘기하다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작가를 대표로 해서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예술계에서 기획자로 활동하고 싶거나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그중 한 명이 될 수 없어요. 예술계에서 활동할수록 작가, 공간 운영자, 기획자, 비평가가 동반 성장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작가들은 기획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있는 작가와 기획자들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그 부분이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이 이어진다면 기획자 그룹이나 비평가 개인도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 한 서울청년예술단의 경우 10개월 동안 1인당 700만 원, 한 달에 70만 원 정도의 창작지원금을 월급처럼 받게 되는데요. 이 사업에 들어오면 다른 공공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초반에는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한 해 동안 뭐 먹고살지, 70만 원으로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우리 작업에만 몰두하고 싶어서 이 사업에 지원한 건데 이것이 타당한 처우이고 가치를 부여한 건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생활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지원이 이전보다 확대된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하는데요. 제대로 된 계산이나 고민 없이 확대되는 정도에만 그친 것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자산 취득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저희는 사실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부 재활용매장에서 가구를 사서 리폼해서 공연에 사용했거든요. 라디오를 사야 하는데 이걸 자산이 아니라 소품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까지 얘기가 많았어요. 각 장르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고 기존의 행정 가이드라인을 문화예술에 그대로 적용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백 소 망 서울청년예술단은 활동 중 80회의 활동을 증명하는 활동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애매한 것이 영상을 편집하는 멤버는 편집할 때마다 사진 2장을 첨부해야 해요. 혼자 작업을 하면서 셀카를 찍어야 하는 거죠. 사진 찍는 것을 잊어버리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활동을 했어도 이날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대체 누구를 위한 일지인가요? 그리고 활동한 후 3일 이내에



일지를 보내야 해요. 이걸 받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지, 몇 회 했는지 일일이 체크해야 하잖아요. 양쪽에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굳이 이렇게 일지 형식으로 활동을 증명해야 할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술 활동은 '9 to 6'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계속된다면 개인적으로 일지는 사라지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멘토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데요. 멘토는 정말 복불복이더라고요. 저희는 희망 멘토를 적어 냈지만 고려되지 않았고 지정해 준 멘토를 만났어요. 멘토제를 유지한다면 그 팀이 원하는 멘토를 연결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 샘 저는 이번에 처음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원사업이 내가 하려는 예술의 틀을 결정지을 수 있고 의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이 들었어요. 저는 창작준비형으로 신청해서 소액인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200만 원으로는 정말 빠듯했죠. 이 시대에서 예술의 역할은 계속 커질 텐데, 예술의 역할을 찾게 하는 바탕은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실험은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원사업은 정부가 판단하거나 이런 결과물을 내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청년예술가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다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내가 하는 예술이 간섭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 맞들이기 시작했을 때 노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실험은 공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년예술가들을 위해서는 서교예술실험센터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실험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소액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이 크지 않아도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등단시켜줄 수 있는 제도, 톨기 넘치는 실험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초예술지원은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 보고서를 내게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아카이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업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수행했는지, 선정된 사람들끼리라도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예술적 기반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창 민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정책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 토론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문화+서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연염색활동가 조미숙

색이 주는 위안을 공유하다

조미숙은 천연염색가인 동시에, 색에 담긴 사회문화 코드와 색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색을 통해 다름을 이야기하는 티칭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색을 매개로 사람과 소통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색을 바탕으로 삶의 철학을 나누는 그의 작업은 한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이다.

색에 대해 생각하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10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한다. 10분 동안 알고 있는 색 이름, 일상생활에서 색을 표현하는 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 따로 정해진 정답은 없다.

자연염색을 이야기하는데 왜 색 이름을 쓰라고 하는지 이상한가? 자연염색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염색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된다. 염색이라는 말은 바로 자연염색을 보고 만들었을 테니까. ‘물 들일 염(染)’은 물 수(水), 아홉 구(九), 나무 목(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이란 색을 물들이는 것인데, 물들인다는 것은 물이 필요하고, 나무로 대표되는 식물이 필요하고, 9번, 즉 여러 번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직접 물들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공장에서 만든 색을 선택만 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자연염색은 스스로 색을 만드는 작업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색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제 다 썼는가? 생각보다 1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쓴 색 이름, 색을 표현하는 말들을 읽어보자. 색 이름을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빨강, 노랑, 파랑’, 혹은 ‘빨, 주, 노, 초, 파, 남, 보’로 시작한다. 교육을 통해 배운 3원색과 무지개의 일곱 빛깔이 강렬하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색, 진달래색, 쪽색, 감색, 무지개색, 개나리색, 황토색... 그럼 난 이렇게 질문한다. “하늘색은 어떤 색인가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 “연한 파란색이요, 크레파스에 있는 하늘색이요”라고 대답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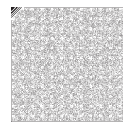


나는 “그런가요?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색은 크레파스의 하늘색과 다른데요? 그럼 밤하늘은요?”이라며 반문한다. 하늘색이라는 색이 실제 하늘을 소외시킨다는 사실. 이런 식의 질문은 계속된다. “감색은 어떤 색인가요? 짙은 파란색일까요, 아니면 먹는 감색, 그것도 아니면 감물로 물들인 갈색일까요?” 같은 색 이름에 서로 다른 색깔들, 국방색, 카키색, 올리브그린색 등 특정 색이 시대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진다. 할머니가 꽃분홍색이라 불렀던 색이 손녀에게는 ‘핫핑크’가 된다.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바라보았던 색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색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인 코드로 작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색을 통해 인생을 배우다

이제 자연염색을 시작해볼까. 자연에서 구한 재료로 천에 색을 물들이는 과정은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색을 고르는 일과 많이 다르다. 천의 종류에 따라서, 중간 역할을 하는 매염제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렇게 물들여진 천은 땀이 묻거나, 세탁을 하거나, 또는 햇빛 때문에 변색되거나 탈색될 수 있다. 바쁜 와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어 힘들게 염색을 했는데 색이 변한다니, 굳이 자연염색을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자본주의시대를 살고 있는 나로서는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따지면 답이 없는 작업이다.

난 이 일을 1997년에 시작해 만 20년째 해오고 있다. 서울대 규장각



1 <길어올라다>, 설차-모시, 옥사에 소리쟁이, 망초, 쪽염색.
2 천연염색 수업을 함께한 학생들.

에 소장되어 있는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와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대여 형식으로 반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 중 왕실의 장례 절차를 기록한 예장도감의궤의 복제사업에 참여하여 표장직물을 염색할 때는 거의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백일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색에 임했다. 복제 대상이 주는 심적 부담이 너무 컸지만, 일을 마친 후의 뿌듯함 또한 컸다. 홍화 꽃잎으로 전통 대홍색(大紅色)을 재현할 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상의원으로 가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염색한 물건이나 작품을 판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자연염색을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먼저 부딪혔던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색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다. 하늘은 하늘색, 은행잎은 노란색, 단풍잎은 빨간색, 나무는 고동색으로 고정시켜놓았던 이미지들이 깨졌다. 그 어느 것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관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내 것이라고 여겼던 생각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색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자연이 내어준 색을 거둬들이면서 그동안 내가 고정관념과 허위의식에 눌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염색을 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하나둘 알게 되었고, 자연에서 위안을 받았다. 나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색을 달리 보도록 권유한다. 우리가 색

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깨닫도록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나무 한 그루를 일주일 동안 한 번씩 관찰하고 색의 변화를 기록하게 하는 과제를 준다. 초등학생들에게는 그날 자신의 기분을 색으로 표현하게 하고, 그 색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의 기분을 짐작하게 한다. 또 자신 안에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한다. 빨간색을 염색하는 시간에는 자신이 경험한 빨간색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식이다. 때로는 눈물색, 엄마색, 사흘 굶은 시어머니 얼굴색 등을 상상하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빛깔로 염색한 후에는 각각의 색에 이름을 지어주도록 한다. 이렇게 자신의 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염색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변화에 순응하다

나는 옛 여인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보자기나 조각보도 사랑한다. 특히 조각보들을 보면 마음이 설레고 가슴 한쪽이 아려온다. 서양의 화가 몬드리안에 버금가는 조형성을 갖춘 예술품을 이름도 없는 옛 여인들이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옛 보자기에는 그것을 만든 여인들의 삶과 꿈, 이야기가 담겨 있다. 쓸모없는 작은 천 조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 이어 보자기라는 쓰임새를 갖도록 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 색의 조각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연의 순리를 담아 이은 결을 발견할 때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결한 정신을 만나게 된다.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나는 아직 명함을 만들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천연염색가’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 호칭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부담스럽다. 난 단지 천연염색을 통해, 때로는 전통 조각보를 통해 모두가 다르다는 것, 또 서로 달라도 괜찮다는 것,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자연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얼마 전 양평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은 색 이름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한다. 포도색, 돼지색, 치즈색, 쌀색, 풍선껌색, 오래된 도화지색, 논색, 밤꽃색, 황소색, 바다고동색, 끼끌끼끌한 색, 오디색, 털 익은 복숭아색, 진시황색, 힘든 색, 쓸쓸한 색….

글·사진 조미숙. 대학과 대학원에서 의류직물학을 공부했으며, 대학 및 여러 공간에서 천연염색과 보자기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색채와 염색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고 삶을 나누며 소통과 치유의 작업을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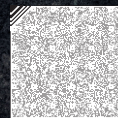
눈 내리는 밤
눈이 내리는 밤

다만 눈이 쉬 그치지 않기를
높은 소망처럼 기원해보는

눈 내리는 밤
물이 내려오는 밤
서성이는 밤

창석남의 시 <하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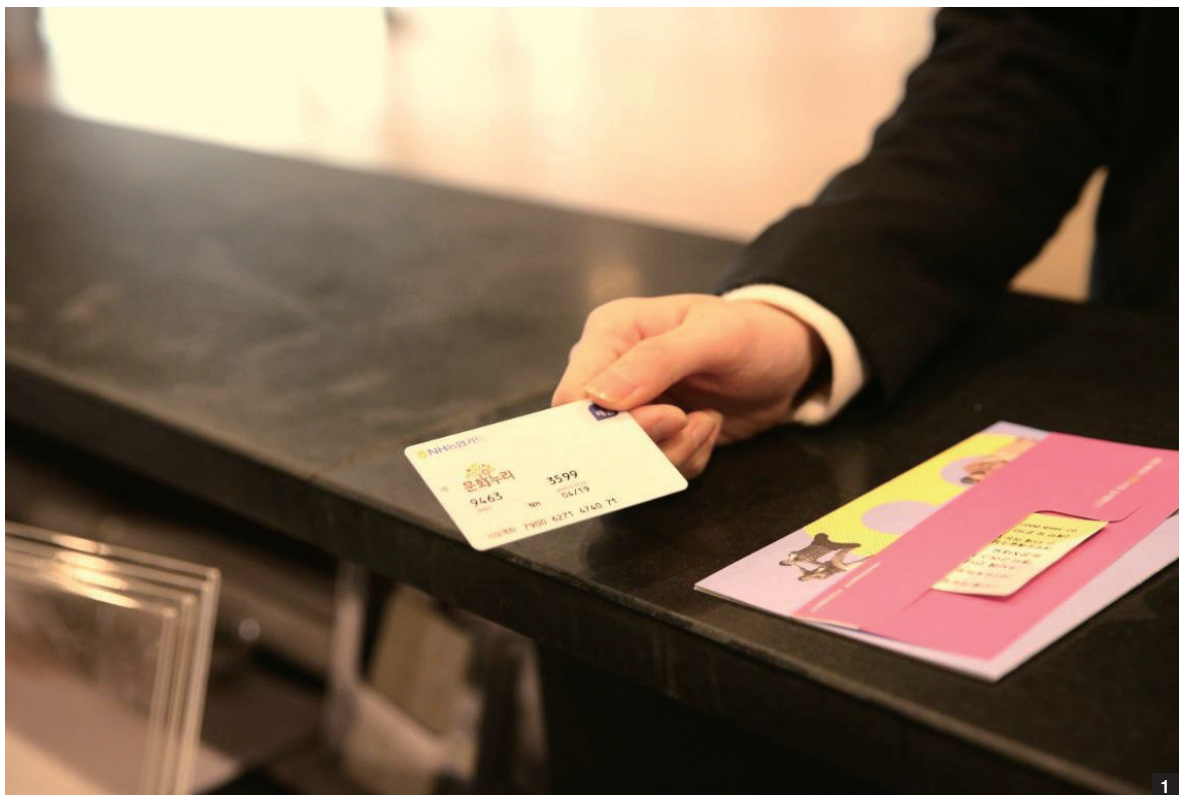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축소 논란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한 문화복지 정책으로

최근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 사업 연간 예산 및 결산 내역' 자료를 분석했다며 관련 의혹을 내놓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예산액은 점점 늘어나 3년 전 대비 약 260억 원이 증가했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60%가 감소했다.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2014년 732억이었던 예산액이 올해 99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매수도 2014년에는 67만 2,043건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145만 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매년 감소해 2014년 5만 7,591개에서 2016년 2만 2,715개로 줄었다. 특히 가맹점 중 도서와 숙박, 교통, 여행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담당 정부 부처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해명에 나섰다. 두 기관은 "가맹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카드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부적격한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 좀 더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 결과"라고 밝혔다. 숙박업소 중 성매매 알선 업소 적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문체부와 예술위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폐업 가맹점, 성매매 알선 등 부적격 숙박업소, 3년간 사용 이력이 없는 숙박업소 등 부적격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 2015년 9월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중 45%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는 보도들이 나왔고, 당시 문체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원룸 등 부적합한 업소를 가맹점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률 위반 업





- 1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 영화, 공연, 여행 등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다.
- 2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안내 포스터.

소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경찰,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다며 이 기관들과의 소통도 약속했다.

문화누리카드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노력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된다.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다. 2005년 시작한 문화바우처 사업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으로 일원화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개인당 연간 지원금은 6만 원에 불과했다. 문화소외계층이 고품질 문화를 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이유다. 지난해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당일 관광 여행 지출비용이 9만 3,288원에 이른다. 문화소외계층은 1년에 한 번 여행을 떠나더라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주로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 위주로 활용되는 경향이 짙다. 실제 11월 기준 전국 2만 5,698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숙박(6,401개)과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문화일반(5,445개) 다음으로 도서(4,056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았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급액을 연간 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수혜인원도 올해 161만 명에서 164만 명으로 3만 명 증가한다. 앞서 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예산을 지난해 699억 원보다 17.5% 인상한 821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2021년까지 지원금이 1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영화관 등 문화 관련 시설 이용과 스포츠 관람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동네 주변의 당구장,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같은 체육시설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문화향유 양극화 해소 필요

문제는 문화향유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다. 고급문화라고 여겨지는 뮤지컬 관람의 경우 표 한 장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색 내기가 아닌 질 좋은 진짜 문화향유를 위한 기반이 갖춰져야 하는 이유다. 한편에서는 고급 공연장의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격차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월 현재 문화누리카드 승인 건수가 서울은 64만여 건으로 집계된 데 반해 지역 범위가 비교적 작은 울산(4만 8,000여 건)과 세종(1만 2,000여 건)은 차치하더라도, 강원과 충북은 각각 15만여 건과 12만여 건에 불과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 문예회관의 경우 공연장을 채울 콘텐츠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어도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먼저 확실히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한편, 예산 부족 같은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문화누리카드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11월 기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이 문화누리카드 발급 가능 대상자들이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글 이재훈, 뉴시스 기자 사진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등록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련 문제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한 때

지난해 5월 29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되는 11월 30일이었고, 부칙 제2조에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가 덧붙여져 있었다.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경과조치 조항을 두어 그동안 미등록 상태에 있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했다. 그 기한은 올해 11월 29일까지였다.

지자체 박물관 미등록에 대한 문제들

미등록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가 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발행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이 발간되는 시기가 되면 언론의 보도에도 자주 등장했다. 국공립이라고 묶어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 박물관의 경우를 말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현재 공립 박물관의 약 25%가 미등록 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11월 29일을 기점으로 법적 지위를 상실하여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었다. 최근 문체부는 미등록 현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조사했고, 지난 11월 7일에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아직까지 어떠한 대응책이 마련되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필자가 경험했던 지자체 박물관의 미등록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해 박물관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예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그 규모와 살림살이가 다르긴 하지만, 행정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학예직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1, 2, 3 국내 국공립 박물관들. 사진 순서대로 문화역서울284, 한국안화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사진은 내용과 무관)



총액인건비제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인력 수급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순환 배치할 경우 학예사 자격증의 유무 때문에 박물관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새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공무원 충원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점이다. 날로 커져가는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박물관 정책에 대한 거시적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은 문화현장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용공간의 문제다. 박물관은 일정 크기의 전시실과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설비시설을 구비해야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녹록하지 않다. 지금은 지자체가 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그 설립 타당성을 문제부로부터 사전에 평가받도록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나눠 먹기식 국책사업이나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으로 박물관 설립이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난립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실, 현재의 미등록 관은 그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박물관의 보편적인 목적처럼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대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나 인물의 기념사업을 위해 추진된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그 설립의 준거를 박물관에 두지 않고 추진되다 보니 애초부터 박물관 등록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전용공간의 구비라는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곳이 많다.

문화시설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 필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공원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과 명칭을 사용하는 곳들이다. 문체부에서는 2003년부터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발간하고 있다. 도서관,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수집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미등록 박물관의 통계 역시 이 총람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미등록 박물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등록 여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박물관 정책은 양적 팽창을 주도하던 때가 있었고, 운영이 어려운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육성에 크게 관심을 쏟던 시절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립 박물관은 박물관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는지도 모른다. 국립 박물관의 이상적인 운영을 따라가는 길은 요원했고, 사립 박물관의 아우성 앞에서는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인적·물적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박물관은 애물단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마찬가지다. 실무자들의 입에서는 고사 직전의 나무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격이라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당근이 필요하다. 재갈과 채찍은 이르다.

글 안태현.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장 사진 제공 한겨레

윤동주 탄생 100주년

한국 문학사의 별이 되다

올해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관련 행사가 이어졌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국내외에서 개최되었고, 최근 한국조폐공사에서 윤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메달을 출시하기도 했으며 일러스트를 담은 윤동주 스페셜 에디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오는 12월 30일은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짧지만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가 한국 문학사의 별이 된 윤동주 시인을 떠올리며 그의 작품을 더듬어본다.

- 1 윤동주문학관 외관.
- 2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는 시낭송이 있었던 문학토크콘서트 <청년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다>.
- 3 윤동주 시인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윤동주문학관 전시실.
- 4 2017 윤동주문학제 시화전.



윤동주의 시에서 '달'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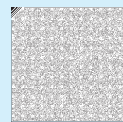
윤동주의 작품 중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의 마음을 먹고 달을 쏜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백미인 산문 <달을 쏜다>를 빼놓을 수 없다. 이 글은 “나의 누추한 방” 연희전문 핀슨홀에서 시작한다. <달을 쏜다>를 읽으면 윤동주가 어떻게 시 한 편을 완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인섭 선생이 <달을 쏜다>라는 제목을 주고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주었는데, 윤동주는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하나의 에세이로 완성시켰다. 이후 윤동주는 이 글을 1938년 10월 <조선일보>에 투고했다.

윤동주는 정원으로 나가서 연못을 본다. “못 속에도 역시 가을이 있고 삼경(三更)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달이 있다. 그 찰나 가을이 원망(怨望)스럽고 달이 미워진다.” <달을 쏜다>에 나오는 위의 구절은 1년 뒤 시 <자화상>을 완성하는 기본 구상이 된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산문 <화원에 꽃이 핀다>에서 문장 한 행을 쓰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고백하고 있다. 1년 동안 온몸과 세포를 거쳐 익히고 익은 문장을 썼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의 단어를 모아 이 줄문을 지적거리는 데도 내 머리는 그렇게 명석한 것이 못 됩니다. 한 해 동안 내 두뇌로써가 아니라 몸으로써 일일이



헤아려 세포 사이마다 간직해두어서야 겨우 몇 줄의 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있어 글을 쓴다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일 수는 없습니다. 봄 바람의 고민에 찌들고 녹음의 권태에 시들고, 가을 하늘 감상에 울고, 노변(爐邊)의 사색에 졸다가 이 몇 줄의 글과 나의 화원과 함께 나의 1년은 이루어집니다.

- 윤동주 <화원에 꽃이 핀다>

윤동주는 <달을 쏘다>에서 “달이 있다”, “달이 미워진다”고 썼다. 왜 달이 미울까. 윤동주는 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의 시에서 달이란 무엇일까. 달은 식민지 시대의 어두운 심상, 희망 없는 조선인의 우울을 상징한다. <달을 쏘다>와 <자화상>에 나오는 달도 이러한 달이라면, “달을 쏘다”라는 행위는 저 어둠과 우울을 깨부수겠다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겠다.

“그 찰나 가을이 원망(怨望)스럽고 달이 미워진다”는 표현에 주목해보자. 겨울로 다가가는 가을이 원망스럽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아우의 붉은 이마에 젖은 “싸늘한 달”처럼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

다. <달을 쏘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눈시울이 흔들린다. 정말 윤동주가 썼을까, 호전적인 표현이다.

끝까지 희망을 걸다

더듬어 돌을 찾아 달을 향하여 죽어라고 팔매질을 하였다. 통쾌(痛快)! 달은 산산(散散)히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놀랐던 물결이 잦아들 때 오래잖아 달은 도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알미운 달은 머리 위에서 빈정대는 것을…….

나는 곳곳한(곳곳한) 나뭇가지를 골라 띠를 찢어 줄을 매어 훌륭한 활을 만들었다. 그리고 좀 탄탄한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武士)의 마음을 먹고 달을 쏘다.

그가 물결 위의 달과 하늘의 달을 깨부수려 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달을 부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내면의 달은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다. “연정, 자홀, 시기”(〈이적〉)처럼 그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욕망을 달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그도 알지 못했던 울증(鬱症)을 만들었겠다.

이 글을 겉으로 읽으면 대단히 감상적인 글로 읽힌다. 핀손홀에서 지내는 상황과 내면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친구와 이별하는 상황도 상세하게 나온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표면적 묘사 속에 숨어 있는 그의 성숙하고 강력한 내면이다.

뒷부분에서 글은 점점 강한 분위기를 보인다. “죽어라고 팔매질”, “통쾌”, “곳곳한”, “띠를 찢어”, “탄탄한 갈대”는 이 산문의 앞부분에서 볼 수 없었던 강한 역동성(逆動性)을 보인다. 이 표현들이 갖고 있는 역동성은 “무사의 마음”이라는 단어에 모인다. 비관과 절망에서 느닷없이 “달을 쏘다”라고 마무리한다. 도대체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달(햇것)을 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처구니없지만 끝까지 공격하고, 무지막지하게 끝까지 희망을 걸어보려는 태도야말로 암담한 식민지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의미였다. 이 참혹한 기다림, 이 참혹한 절규야말로 일말의 희망이 없는, 거짓만 빛나는 세상에서도 살만한 세상을 꿈꾸는 의지였다.

“달을 쏘다”라는 허망할 것 같은 다짐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다짐이다. 숲속에서 그는 허망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바람을 움직이는 나무”(〈나무〉)를 꿈꾸는 그가 쓴 마지막 구절이야말로 당찬 실존을 응축한 다짐이다.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의 마음을 먹고 달을 쏘다.”

글 김응교, 시인, 숙명여대 교수 사진 재공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의 응급상황 매뉴얼

맞춤형 인명구조 프로토콜이 필요한 때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공연장과 같은 문화예술공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김용배 교수가 공연 도중 쓰러졌고, 2015년에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객석에 있던 의사와 구급대원의 도움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응급상황 매뉴얼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공연장에서 일어난 급성 심정지 사건

지난 10월 17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챔버오케스트라의 90회 정기연주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휴식 시간 전 마지막 곡,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앙코르 연주가 끝난 후 다시 박수가 이어졌다. 한데 그 순간 피아노 연주자였던 김용배 추계예술대 교수가 쓰러졌다. 그때 객석에서 의사 한 명이 무대로 뛰어올라왔다. 공연을 보러 와 있던 내과 전문의 김진용 씨는 쓰러진 김용배 교수 곁으로 다가와 가장 먼저 의식을 확인했다. 이어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뒤 흉부압박을 시작했고, 예술의전당 직원에게 입구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3분 정도 흉부압박을 하는 사이 김진용 씨는 지쳐갔고, 때마침 외과 전문의 허창호 씨가 객석에서 올라와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았다. 그러던 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했다. 이 장비를 김용배 교수의 가슴에 붙이고 두 차례 작동시키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호흡이 회복되면서 의식도 돌아왔고, 8시 50분경 119가 도착했다. 10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김용배 교수의 생



명을 구한 두 명의 의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공공기관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움이 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경험하고 나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당사자는 대구시향의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였다. 공연 도중 갑자기 쓰러진 그를 객석에 있던 의사와 구급대원이 살렸다. 당시에도 이 사건은 널리 회자되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심정지 환자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20만 명 이상이 급성 심정지로 목숨을 잃는다. 2~4분에 한 명씩 심정지로 죽는다는 이야기다. 이 중 65%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쓰러진다. 그렇다면 김용배 교수나 줄리안 코바체프처럼 사회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사회생활은커녕 심장이라도 다시 뛰게 되는 경우가 불과 3~5% 정도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은 모두 공연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했다. 심정



이진희/사진출처

- 1 서울무용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2 지난 10월 17일 열린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제90회 정기연주회.

지는 공연장 직원, 공연자, 관객 모두에게 발생 가능하다. 무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무대 위로 올라가서 ‘기본인명구조술’에 따라 처치를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심정지 환자가 객석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일단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를 객석에서 끌어내야 하고, 공연도 중단시켜야 한다.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현장에서의 처치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연습시키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각 상황에 따라 공연장 맞춤형 인명구조 프로토콜이 확립되어야 한다. 최근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지하철, 공항,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에 비치되어 있다.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덕에 김용배 교수와 줄리안 코바체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두 사건 현장에 심폐소생술과 응급상황에 익숙한 의사나 구급대원이 없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연장 심정지 인명구조 프로토콜 제언

[전제 조건]

전 직원의 ‘기본인명구조술’ 교육 및 반복 교육, 그리고 주기적 상황별 시뮬레이션 교육: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복이 필요하다. 실제 의료인들도 최소 2년에 한 번 이상 반복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들조차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할 수 있다. 공연장 관계자들과 직원들의 반복 교육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상황별 프로토콜]

■ 무대 위 심정지 상황(CODE Stage Red: CODE S-Red): 무대 위 심정지 상황의 경우, CODE S-Red로 명명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대 바로 아래 또는 무대 양옆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여 이 장비를 바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늦게 적용하면 늦게 적용할수록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 객석 심정지 상황(CODE Guest Red: CODE G-Red): 객석에서 발생한 심정지 상황은 CODE G-Red로 명명하여 구분되도록 하고, 객석에 있는 환자를 신속하게 복도로 이동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 또는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환자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앉아 있는 줄 어딘가에 환자가 발생한 것을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열 또는 행의 자들을 일시에 붉은 빛이 나면서 진동이 울리게 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신속하게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는 복도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심장충격기는 관객석 복도 중간 어딘가에 비치되어 있어야 가능한 한 빨리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 기타 심정지 상황(CODE Public Red: CODE P-Red): 공연장 내부가 아닌 공연장 밖의 상황에 대해서도 CODE P-Red로 명명하여 공연장 내부 상황이 아님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시설에 대한 제언]

공연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심정지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상황별 CODE를 주변에 전파할 수 있도록 방송 시스템 구축, 공연장 내부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무대와 객석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이탈 시 119 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 공연장 내의 119 진입로 확보, 객석 의자에 심박수 센서 또는 심전도 전극 삽입, 객석 의자에 응급호출 시스템 적용, 무대 위 공연자 자리에 고정형 또는 휴대용 응급호출 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제반시설의 변화나 구축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동심장충격기의 공연장 내부 비치와 각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 마련, 각 상황에 맞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제고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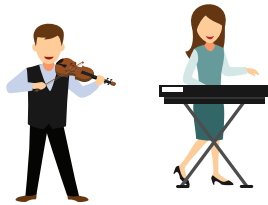
글 이윤재,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



2017 서울시민예술대학 프로그램
'작곡하는 당신 <음악작당 Rubato>'

어긋나도
좋다,
아무래도
좋다

현대미술, 현대무용, 그리고 현대음악까지.
'현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난해한
느낌이 든다. 규칙적이고 정갈한 클래식한
작품들에 비해 현대의 예술은 불규칙적이고,
형태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현대예술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예술 세계를 지향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적인 것들을 어색해하는
것일까? 이에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시민들과 함께 어렵다고 느꼈던 현대음악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1 오늘의 장난감.
- 2 조를 이루어 악기의 소리를 들어보는 중이다.
- 3 TIMF양상블의 공연.
- 4 유하나 씨와 참가자들이 함께 작곡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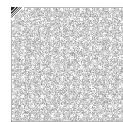
현대음악, 그 낯설에 대하여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철학인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폭넓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4월부터 입문자와 신규 참여자를 위한 17개의 일반 과정과 최대 3년까지 단계별 전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11개의 심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는 작곡하는 당신 <음악작당 Rubato>를 새롭게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현대음악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재료와 기본적인 음악도구를 활용해 잘게 부서지는 박자와 소리를 느껴보고, 시각적인 언어와 몸짓을 통해 말 그대로 온 몸으로 현대음악에 닿아보는 수업이다.

'음악작당 Rubato'라는 이름은 현대음악을 만들기(작, 作) 위해 모인다(작당하다)라는 중의적 의미의 '작당'에,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연주법이라는 뜻의 'rubato'를 더해 만들어졌다.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5회,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 1층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가량 진행되며 현대음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포필하모닉 전임 작곡가이자 예술가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하나, 현대음악에 정통한 피아니스트 임수연,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연주단체 TIMF양상블의 연주자들이 특별강사로 나섰다.

이제 우리 친해져요

11월 8일, '리듬작당'이라는 1일차 수업이 진행됐다. 놀이를 통해 리듬의 패턴을 체험하고 메시앙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4중주>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등에서 보이는 현대적 리듬 기법을



TIMF의 타악기 앙상블 공연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현대음악의 이론 강의에 앞서 유하나 씨는 참가자들의 굳은 몸을 풀어주기 위해 박자를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게 했다. ‘강박’의 작은 북소리가 나면 걷고, 막대기를 두드리면 박수를 치고, 종소리가 들리면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점프를 하는 등 순발력과 기억력을 요하는 게임이었다. 게임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4개의조를 이루고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악기를 이용해 유하나 씨의 반복되는 북소리 사이에 자신들만의 박자와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냈다. 정갈한 나무소리, 청아한 종소리, ‘속속’ 사포를 문지르는 소리 등 다채로운 소리와 리듬이 섞이다 보니 조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 조는 시냇물이 흐르는 청아한 음색을, 또 한 조는 달빛이 비치는 스산한 숲속 같은 음색을 연출했다.

현대음악의 매력에 빠지다

이렇게 1부가 끝난 뒤 드럼에 카우벨이 부착된 악기를 이용한 TIMF 앙상블의 타악기 연주(Tomer Yariv: Gyro)가 시작되었다. 실내의 웅축된 공기를 더욱 팽창시킬 만큼 역동적이고 유쾌한 공연이었다. 1부에서 박자를 가지고 놀았다면, 2부에서는 1부의 놀이들이 실제로 현대음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임수연 씨의 설명과 작품 감상이 진행되었다. 현대음악에서는 획일적인 박자가 아니라 독특하고 도발적이며 즉흥적인 리듬이 모여 하나의 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메시앙, 스트라빈스키, 리게티와 같은 현대음악 작곡가들은 클래식 음악의 규격화되고 부자연스러운 리듬에 의문을 갖고 탈규격화된 리듬을 고민했다고 한다. 첨가리듬, 폴리리듬 등이 그 고민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임수연 씨의 강연이 끝난 뒤 참가자들이 직접 현대음악의 박자를 활용해 작곡을 시작했다. 다소 촉박한 시간에 허둥지둥 작곡했음에도 불구하고, TIMF앙상블의 노련한 연주로 들으니 악보 위의 음표와 리듬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렇게 3시간 동안의 1일차 수업이 끝나고 참가자들로부터 짧은 소감을 들어보았다. “앞으로 남은 4회 수업이 더욱 궁금해진다”, “현대음악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어긋나도 좋다, 아무래도 좋다.’ 이번 <음악작당 Rubato> 수업으로 느낀 현대음악의 매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았다. 클래식한 음악의 섬세한 선율도 좋지만, 현대음악의 불규칙한 부조화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고 언제나 빠ζε대는 존재이기 때문은 아닐까. 작곡하는 당신 <음악작당 Rubato>를 통해 현대음악을 넘어 우리의 삶까지도 되돌아볼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글 · 사진 박소현, 서울문화재단 시민기자



‘엉뚱한 사진관 for 대학로’ 프로젝트 결과전시
<6470展>

당신에게 6,470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나에게 6,470원이란?” 조금은 엉뚱한, 다소 도발적이기까지 한 질문으로 전시가 시작됐다. 우리들에게 6,470원은 어떤 의미일까? 전시 기간 동안 수많은 청춘들과 6,470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위한 희망인,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상적 가치인 6,470원.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6470 청춘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대학로를 찾아온 ‘엉뚱한 사진관’, 그들이 6,470원에 주목한 이유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2016,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일반 시민 중 청년층의 문화예술관람 횟수는 연평균 20.94회로 전 연령 중 가장 많다. 이보다 앞선 〈대학로 연극 실태조사〉(2013, 서울연극센터)에서도 대학로를 찾는 관객 중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대학로 방문 시 공연, 식사, 음료, 교통 등으로 지출하는 평균 금액이 약 3만 2,000원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후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화예술과 멀어진다.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 문제 때문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아티스트 105호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



학로를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 문화예술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 하지만 6470이라는 숫자로 노동의 가치를 환산당한 그들. 청춘에게 노동과 돈은 어떤 의미일까?

지푸라기, 애증, 숙명, 밥벌이 또는 원동력, 독립

지난 10월 초, 사전 모집을 통해 ‘6470사진관’에 참여할 시민들이 모였다. 신청자가 없을까봐 걱정했던 것과 달리 57명이 지원했다. 지원자는 20~30대가 주를 이루었지만, 56세의 주부도 있었다. 대학생, 파견직 회사원, 배우, 독립기획자, 주부 등 19명이 최종 모델로 선정되었다. 10월 14~15일 이들에 걸쳐 인터뷰와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고, 다큐멘터리, 화보 사진, 정물 사진 등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다큐멘터리 〈6470〉은 자신의 인생 중 일부를 최저임금과 맞바꾸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상은 개인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



- 1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6470원을 의미하는 전시명.
- 2 매주 주말에 열린 팝업사진관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6470원의 가치와 의미를 나누었다.
- 3 각자 느끼는 6470원의 가치를 사진으로 표현한 <나에게 6470원이란?>.
- 4 청춘과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맞바꾸며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6470>.

고 청춘과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맞바꾸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물 사진 <6470/N>은 노동을 통해 구매한 물건을 시급으로 나눈 작품이다.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기 위해 최소 15시간을 일해야 하는 모순적인 현실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 속 물건들은 인터뷰 참가자들이 노동을 통해 구매한 소중한 물건이다.

화보 사진 <나에게 6470원이란?>은 본인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의 가치를 담았다. 1시간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늘 타인에 의해 정해진 점에 주목하여 본인이 느끼는 6,470원의 가치를 사진으로 표현

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으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저것밖에 안 줘? 그럼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라는 절실함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어 좋다. 내 행동에 독립심이 부여되는 느낌이다”라는 희망의 목소리까지,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노동의 목적도, 각자 생각하는 6,470원의 가치도 서로 달랐다.

수많은 6470의 목소리를 듣다

11월 12일까지 열린 <6470展>은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울연극센터 1층에서 열린 상설 전시는 기존에 운영되던 마음약방 2호점 청년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작지만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아이러니>, <밥벌이>, <나를 가두는 틀> 등 3점의 화보 사진 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구매한 물건들을 담은 정물 사진 위주로 작품을 배치하여 노동의 무게감보다는 가치로 환산되는 6,470원의 이미지에 중점을 뒀다.

1층 공간을 지나 2층 기획 전시실로 이동하다 보면 드라마틱한 공간을 만나게 된다.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수전노 등 고전희곡에서 발췌한 노동 관련 대사들은 2017년에도 익숙하다. 붉게 이어진 계단 끝의 기획 전시실에서는 더욱 다양한 6470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일렬로 나열된 6470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한다. 매주 주말에 열린 팝업사진관에서는 현장에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6,470원의 가치와 의미를 나누었다. ‘엄빠 미안’, ‘자괴감’, ‘회사 저녁 식대’, ‘과정’, ‘버거킹’, ‘희망 고문’, ‘PC방 6시간’, ‘워너 신곡을 위한 멜론 스트리밍’ 등 수많은 6,470원에 대한 이야기가 벽면을 장식했다. 하나씩 늘어나는 사진을 보며 6,470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건넨다. 나에게 6,470원은 ‘다음 세대에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 열정페이 말고 이젠 정당한 가치를 주세요’이다.

3개월간 이어진 ‘6470사진관’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 모두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어차피 처음부터 정답은 없었던 질문이었다. 하지만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2017년의 ‘영뚱한 사진관’은 이렇게 문을 닫지만, 2018년에는 또 다른 영뚱함으로 더 큰 울림을 주길 기대해본다.

글 김윤경, 서울연극센터 사진 서울문화재단



SeMA 벙커

굳게 닫힌 비밀의 문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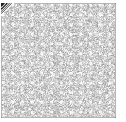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뻥뻥하게 들어찬 서울 여의도 지하에 꼭꼭 숨어 있던 벙커가 문화공간 'SeMA 벙커'로 다시 태어났다. 과거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방치돼 있던 지하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서울시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에서다. 어쩌면 지하보다 더 갑갑하게 느껴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던 공간

여의도 지하철역은 2005년 4월 중순,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됐다. 기록을 뒤져보았지만 도면은 물론 소관부처와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관리하던 대통령 대피시설로 1976년 말에서 1977년 초 극비리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발견 직후 서울시에서 휴게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수익성 문제로 다시 폐쇄하면서 시민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 10월 발견 당시 모습으로 복원되어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되었다. 사전 예약제로 한 달간 임시 개방한 이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시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임시 개장 때 처음 이곳에 들어와봤다는 박승연 서울시립미술관 코디네이터는 “당시 석면 제거 등 기본적인 청소는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정말 습했다. A4 용지 한 장을 들고 들어오면 5분 안에 종이가 축축해질 정도였다”고 전했다. 지하라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아 전시를 열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만들어진 지 40년, 발견 이후로도 10년간 방치되었기 때문에 손볼 것 투성이었다. 전시를 위해 가벽이 세워지고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전시공간에 필수적인 향온향습시설까지 갖추면서 전시장으로 거듭났다. 1년여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19일 'SeMA(Seoul Museum of Art의 약칭) 벙커'라는 정식 명칭을 걸고 개관했다.



- 1 개관 기획전 <여의도 모더니티>.
- 2 SeMA bunker 주 출입구.
- 3 bunker 관련 사진과 자료를 상설 전시하는 역사갤러리.
특별전으로 윤지원 작가의 <나, 박정희, bunker>가 상영되었다.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갤러리는 bunker 관련 사진과 자료를 상설 전시하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기획해 영상을 상영한다. 단순히 bunker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박물관에 머물지 않기 위해 기획 전시가 바뀔 때 영상을 함께 바꿔 변화를 준다. 역사갤러리 특별전으로 상영된 윤지원 작가의 <나, 박정희, bunker>에는 <제4공화국>을 비롯한 드라마에서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도맡아 했던 이창환 배우가 직접 출연했다. 12월부터는 권혜원 작가가 bunker를 주제로 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역사적인 장소 그대로 보존

SeMA bunker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3개이다. 주 출입구는 IFC 몰 앞 보도에 있다.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2번 승강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출입구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닫아놓았다. 대신 승강장에는 발아래 bunker가 있다는 안내판을 세웠다. 나머지 신한금융투자 건물 쪽 출입구는 엘리베이터로 연결된다. 지상에서 불과 몇 계단 아래 이렇게 넓은 공간(연면적 871㎡)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창문 하나 없이 꼭 막힌 실내와 낮은 천장, 습습한 공기가 bunker에 들어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최초 발견 당시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비교해보면 원래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타일이 깔린 바닥과 하얀 타일로 마감한 벽은 원래 상태 그대로이고 천장은 노출 형태로 마감해놓았다.

소파, 샤워실, 화장실이 발견되어 VIP실로 추정되었던 공간(66㎡)은 역사갤러리로 꾸몄다. 역사적 공간의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견 당시와 최대한 가깝게 복원했다. 당시에는 최고급품이었을 호피무늬 소파는 무릎까지 차오른 물에 잠겨 천이 삭아 있었다고 한다. 2015년 임시 개방 때 비슷한 느낌의 천으로 교체하고 프레임은 그대로 두었다. 시민들이 직접 앉아볼 수 있도록 해 인기가 좋다.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도 그 자리에 남아 전시품이 되었다. 샤워실이 있던 자리에는 bunker 곳곳에 진입할 수 있는 열쇠 보관함과 bunker의 두께를 가늠해볼 수 있는 50cm 두께의 콘크리트 조각을 전시해놓았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강한 폭격도 막아낼

시민들로 가득 찬 bunker

SeMA bunker 운영은 서울시립미술관이 맡았다. 공간의 특성을 감안해 미디어 특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여의도에서 특화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30여 분 내외의 짧은 독립영화를 점심시간에 상영하는 등 직장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개관 기획전 <여의도 모더니티>에 이어 12월 7일부터는 김현진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다수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소장한 부부의 컬렉션전을 1월 말까지 연다.

bunker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인지 개관 초기에는 평균 1,000명 정도 방문했고 이후에도 일 평균 500명이 방문하고 있다. 위치가 여의도다 보니 아무래도 정장을 입은 남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찾는데, 퇴근 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재 오후 6시까지인 운영시간을 조정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역사갤러리 내의 소파와 화장실이 방송에 소개되고 나서 직장인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 들어오자마자 소파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물으신다고. 버스환승센터 아래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아무런 기록도 남길 수 없었던 bunker의 역사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져 40년 넘게 텅 비어 있던 공간은 이제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고흐와 백석에겐 든든한 ‘내 편’이 있었다

예술가에 대한 평가는 그가 세상에 내놓은 작품을 통해 이루어진다. 화가는 그림으로, 시인은 시로 기억된다. 이 때 그림과 시는 곧 그들의 삶 자체이기도 하기에, 작품 이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감상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19세기의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토속적 시어로 모더니즘을 노래한 시인 백석의 삶이 무대 위로 옮겨졌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통해서다. 당대엔 외면당한 화가로, 가난한 시인으로 살던 이들이었지만, 이들에게도 세상 제일의 ‘내 편’이 있었다.

- 1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 2 뮤지컬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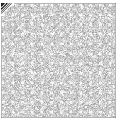
700통 편지에 담긴 인간 고흐

<빈센트 반 고흐> 11. 4~2018. 1. 28, 충무아트센터

오늘날 세계적인 화가로 평가받는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왜 자신의 귀를 자르고, 자신의 가슴팍에 권총을 겨눴을까. 37세의 나이로 짧고 강렬했던 삶을 마감한 고흐를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700여 통의 편지로 마주한다. 무대 위로 옮겨온 인간 고흐의 삶은 어쩌면 지극히 어둡고 안쓰럽게 느껴질지 모른다. 창녀와 사랑을 나눴다는 이유로 목사인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언젠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죽기 전까지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을 뿐이다. “쉬지 않고 그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던 그가 일생에 걸쳐 보여준 그림에 대한 집념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지독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도, 인생의 전부라 여겼던 그림에서의 인정도 얻지 못했던 고흐가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생 테오였다. 형의 미술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응원하며 재정적·정신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테오는 모두가 고흐를 외면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런 동생에게 죽음 직전까지 편지를 남기며 감정을 교류했던 형 고흐. 이들이 보여주는 돈독한 형제애는 코끝을 찡하게 한다.

3D 등 최첨단 영상기술과 접목한 고흐의 그림을 만나는 것은 이 공연의 또 다른 재미다.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방>, <꽃 핀 아몬드 나무> 등 고흐의 명작들이 무대와 공연장 전면에서 살아 움직이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배우들의 터치만으로 하얀 캔버스 위에 그림이 그려졌다가 사라지고, 인물화 속의 모델은 관객에게 인사를 건넨다. 무대의 배경 같았던 소품들은 고흐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 조각이 된다. 그림이 삶의 전부였던 고흐의 인생과 닮아 있다. 여기에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의 음악이 더해져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든다.



최근 선보인 고희를 소재로 다룬 영화, 테마파크 등과 함께 즐기다
면 색다른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9일에는 전 세계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가 10년에 걸친 제작 끝에
개봉했다. 고희가 죽은 지 1년 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장소로
찾아가 그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추적해가는 내용이다. 얼마 전 오
픈한 아트랙티브 테마파크 ‘라플리에’는 고희의 인상주의 작품들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역을 준대도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10. 19~2018. 1. 28, 대학로 유니플렉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제 식민통치기 중·후반기의 조선 문단을
배경으로 활동한 시인 백석(1912~1996)은 천부적인 재능과 훈훈한
외모로 시대를 풍미했던 문인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그의 연인, 기생 ‘자야’(김영한, 1916~1999)와의 평생에 걸친 절절한
로맨스를 그린 뮤지컬이다. 백석이 만주에서 자야를 그리워하며 쓴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두 사람은 부모의 반대로 혼례도 치르지 못한 채 3년간 동거생활을
하지만 분단으로 영영 헤어지게 된다. “천역을 준대도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고 했다는 자야는 50년 세월 동안 백석만을 그리워하
며 재산을 모으는 데 전념한다. 가난한 시인이었던 백석이 돌아왔을
때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생각에서다. 훗날 그녀는 대한민국
3대 요정인 ‘대원각’의 주인이 되고, 법정수님에게 이를 시주해 탄생
한 절이 길상사다. 현재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해 있다.

20편이 넘는 백석의 시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노래와 대사
로 재탄생한다.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상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펼
쳐진다. 화려한 무대장치나 효과 없이 배우들의 연기만으로도 세월
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를 풍부하게 표현해낸다. 세 명의 배우와 피
아노 한 대 편성만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배우 한 명 한 명이 한 줄의 시처럼 다가온다. 백석의 시에
담긴 여운과 여백, 담백함과 절제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는 오히려
빼곡히 들어차지 않은 무대와 배우 구성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글 이경은, 머니투데이 기자 사진 제공 HJ컬처,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전시 <리처드 해밀턴: 연속적 강박>과
<요나스 메카스: 찰나, 힐끗, 돌아보다>

전설적인 거장들의 색다른 회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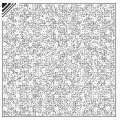
일단 작가의 이름만으로도 무게가 실리는 전시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리처드 해밀턴 개인전, 서울관의 요나스 메카스 개인전도 그렇다. 전자는 팝아트의 역사에서, 후자는 아방가르드 영화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저마다 '아시아 최초'를 내건 두 전시는 이름값에 더해 여느 회고전과 다른 신선한 방식이 눈길을 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1922년생이다.

이것이 영국 팝아트다

<리처드 해밀턴: 연속적 강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1. 3~2018. 1. 21

2011년 89세로 세상을 떠난 리처드 해밀턴을 한 줄로 소개하면 '영국 팝아트의 거장'이다. 앤디 워홀 같은 미국 팝아트 작가에 비해 대중적 유명세는 덜할지 몰라도 일찌감치 1950년대부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현대사회가 지닌 특징을 이전의 미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포착해왔다. 신문, 잡지, TV 등 대중매체에 투영된 이미지 역시 즐겨 활용했다.

예컨대 <스윙 링턴>은 신문에 보도된 사진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롤링스톤스 멤버 믹 재거와 아트 딜러 로버트 프레이저가 등장하는 유명한 연작이다.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법정에 호송되는 두 사람이 수갑 찬 손을 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는 모습은 유화와 판화의 다양한 기법으로 변주되며 팝아트에서 또 하나의 아이콘 같은 이미지가 됐다.



- 1 리처드 해밀턴 <Self-portrait>
05.3.81 a, 1990, Oil on
Cibachrome on canvas, 75×75cm,
Hamilton Estate.
- 2 리처드 해밀턴 <Swingeing
London 67 (f)> 1968-69, Acrylic
paint, screenprint, paper,
aluminium and metalised acetate
on canvas, 67×85cm, Tate
Purchased 1969.
- 3 <요나스 메카스: 찰나, 힐긋,
돌아보다> 전시장 전경.



이처럼 이번 전시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되, 특정 소재나 주제를 반복적으로 작업한 일련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옥중 투쟁을 벌이는 정치범을 종교화의 성인처럼 묘사하거나 평범한 꽃 그림에 두루마리 휴지를 곁들이는 등 기존 회화의 전통을 변용한 면모도 재미있다. 드로잉, 판화, 유화 등 90여 점을 선보인다.

아방가르드 영화의 대부를 만나다

<요나스 메카스: 찰나, 힐긋, 돌아보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1. 8~2018. 3. 4

흔히 '아방가르드 영화의 대부'로 불리는 요나스 메카스는 사실 미술 관뿐만 아니라 영화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다. 그의 작품은 할리우드의 산업화된 영화나 내러티브 중심의 영화와 전혀 다르다. 일상에서 포착한 시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이민자인 그는 1950년대부터 직접 작품을 찍고 다른 한편으로 영화잡지, 영화아카이브 등을 만들며 1960~70년대 미국 아방가르드 영화운동을 이끌었다. 동료 영화인은 물론 백남준, 앤디 워홀, 오노 요코 같은 동시대 여러 예술가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작품에서 추출한 이미지, 즉 동영상이 아닌 정지된 이미지로 2000년대 이후 새로 작업한 작품을 여럿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그와 교류한 여러 예술가들의 모습도 한눈에 볼 수 있다. 14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와 더불어 장편과 단편 등 30여 편을 상영하는 영화 회고전도 함께 열리고 있다.

95세인 그는 요즘도 종종 자신의 일상을 담은 '비디오 다이어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곤 한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같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면모 역시 '아방가르드'답다.

글 이후남_중앙일보 기자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책 <나인>과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

정보혁명의 시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제4차 산업혁명’은 탈진실(post-truth), 즉 가짜 뉴스(fake news)다. 혁명 없는 혁명으로, 완전한 거짓은 아니지만 그럴듯한 진실, 즉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사실에 근거를 두고 설명하는 기술적 용어라기보다 정보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또는 공포)을 표시하는 수단적 용어인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허세와 상관없이,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혁명은 갈수록 거세고 힘차게 현실을 포획해가는 중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 이른바 ‘ICBM 미사일’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비트의 법칙’이 사이버 공간을 넘어 물리적 공간까지 제어하고 융합하는 데 활용하는 O2O(Online to Offline) 전략이 곳곳에서 실행되면서 ‘사이버-피지컬’이라는 ‘이상한 나라’가 개방되고 있다. 세계적 열풍을 불러온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은 작은 전조에 해당할 뿐이다. 장난감이나 공구에서 자동차나 비행기에 이르는 세상 모든 영역이 원더랜드에 속속 포섭되고 있다.

만인과 만인이, 만물과 만물이, 만인과 만물이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수많은 책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대부분 변화의 본질을 통찰하기는커녕 헛되이 거품만 일으켰을 뿐이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앨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이나 <권력자동> 같은 예지를 보여주는 저작은 드물었다. 하지만 두 권의 책만은 가장 깊은 지점에서 이 시대의 변화를 성찰하고, 앞날의 갈피를 선명하게 열어주고 있다. 조이 이토의 <나인>과 케빈 켈리의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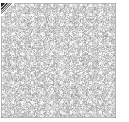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에 희망을

<나인> 조이 이토 · 제프 하우 지음, 이지연 옮김, 민음사

조이 이토는 MIT 미디어랩의 연구소장이다. MIT 미디어랩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실험이 벌어지는 곳이다. 변화의 지휘자인 이토에 따르면, 현대는 ‘기하급수의 시대’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연속해서 변화하고 세상은 그에 맞추어 바뀌는데, 인간의 적응속도는 그에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인간의 숙련노동에 바탕을 둔 산업시대의 상상력으로는 현재 일어나는 변화를 전혀 좇을 수 없다. 산업 자체의 꾸준한 파괴적 혁신이 인간의 숙련성을 통째로 소실시키기 때문이다. 저자의 표현을 따른다면, “지난 수백 년간 사용해온 운영체제의 사소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가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이 시대에 적응하려면, 사회의 현재 상태를 냉철히 인식하고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 이토는 세 가지 키워드로 현재를 요약한다. 해커



한 사람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비대칭성,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사회 한쪽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세상 전체로 퍼져 나가는 복잡성, 가속화된 변화속도 탓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등이다.

현대 사회의 세 가지 특성은 인간의 적응 행동을 위한 아홉 갈래 원칙을 낳는다. 권위보다 창발, 푸시보다 풀, 지도보다 나침반, 안전보다 리스크, 순종보다 불복종, 이론보다 실제, 능력보다 다양성, 견고함보다 회복력, 대상보다 시스템 등이다. 하지만 이토가 궁극적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다. 기계지능이 인간의 집단지성과 통합된다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깊이와 폭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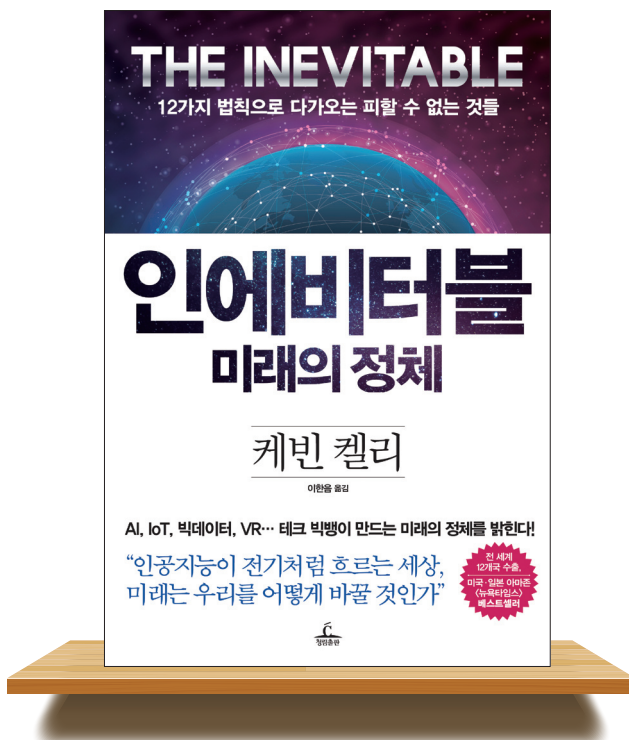
변화를 즐기는 이에게 기회와 보상이

<인에비터블 미래의 정체> 케빈 켈리 지음, 이한음 옮김, 청림출판

케빈 켈리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 문화 사상가다. 그는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 과정을 꾸준히 탐구해왔는데, 이토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간이 기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기술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끝없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우리는 기술 앞에서 항상 초보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기도 한다. 켈리는 “비트와 정보와 네트워크”의 “기초물리학”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기술의 뿌리”를 드러냄으로써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알려준다. 이 흐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열두 가지 힘들로 나누어진다. 되어가다(Becoming), 인지화하다(Cognifying), 흐르다(Flowing), 화면 보다(Screening), 접근하다(Accessing), 공유하다(Sharing), 걸러내다(Filtering), 뒤섞다(Remixing), 상호 작용하다(Interacting), 추적하다(Tracking), 질문하다(Questioning), 시작하다(Beginning) 등이다.

현실에서 이미 활발하게 작동 중인 이 힘들은 인간이 일하고 놀이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것이다. 비트의 법칙에 충실한 이 힘들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다. 차라리 힘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그 특성을 활용해 미래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편이 더 낫다. 켈리에 따르면, 피할 수 없을 바에야 즐겨야 한다. 즐기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낮은 장벽, 더 나은 보상이 따를 테니까 말이다.

글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사진 제공 민음사, 청림출판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체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기획안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10년 넘게 공연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기획안이나 제안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기획안은 실현되지 못하고 제안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쓴 제안서가 업계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음반이나 책 같은 콘텐츠에만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빛을 보지 못한 제안서의 아이디어에는 저작권이 없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에, 제 노력이 너무나 가벼이 여겨지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앞으로 제안서를 준비할 때마다 이 사건이 계속 떠오를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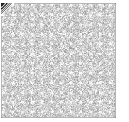


권리 보호 수단이 없을 때, 돌과 창을 준비하라

질문자님 참 답답한 심정이시겠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대응하면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제도, 저작권 등과 같은 제도화된 권리구제수단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부동산 등기제도와 같이 땅의 소유권을 표시할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침입자들을 돌, 창 같은 무기로 쫓던 고대인을 상상하면 되겠지요. 딱 맞아떨어지는 권리 보호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울타리, 그리고 돌과 창은 무엇일까요?

우선 질문자님의 질문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그 범위를 좀 줄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호받고 싶은 공연기획안에 적합한 내용이 공연의 무대장치 같은 기술적인 면인지 무대의 예술적인 표현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상해서 범위를 좀 줄이자면, 공연기획안에 ‘독창적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공연기획안을 돋보이게 하는 ‘멋진 표현’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요소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각 요소가 보호받는 법이 모두 다릅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독창적인 공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특허를 낼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특허는 많이 알려진 제도



이므로 생략하지요.

그 다음 공연 자체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멋진 표현' 문제인데요. 분리하기도 힘들고요. 독창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경우 질문자님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독창적 '표현'에 대한 보호입니다. 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그 '표현'이 보호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는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표현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저작물로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모두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의 보호가 미치는 부분은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한 창작적인 표현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글이라도 시인이 쓴 시는 저작물인데 기자가 쓴 사실 보도의 기사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공연기획안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연기획안에 남들이 보통 사용하지 않는 독창적 방식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연기획안 자체가 창작물인 경우는 잘 없지요. 결국 질문자님이 고민하는 지점에서 저작권법은 그다지 매력적인 보호 수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살펴볼까요. 질문자님의 공연기획안이 기술특허나 비즈니스 모델특허 등을 출원받을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보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닌 아이디어 위주의 공연기획안의 경우 당연히 특허를 내기 어렵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은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연기획안이 영업 비밀로 인정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기획안을 듣는 상대방 및 내부 조력자 등과 비밀 유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공연기획안이 시중에 돌아다닌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부분 기초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 유지 약정서는 기초적 자료이자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인



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 단계 혹은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비밀 유지 약정서를 요구하기 힘든 점이 있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공연기획안 내용에 "기획안의 유출을 금한다. 공연기획안은 자신의 영업 비밀이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영업 비밀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영업 비밀 개념은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영업 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지만 일단 영업 비밀로 표시 및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조직 내부에서 영업 비밀로 표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적으로 유출되는 기획안에 "공연기획안은 영업 비밀이므로 외부 유출을 금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영업 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www.tradesecret.or.kr)에서 영업 비밀에 대한 원본증명제도와 같은 보호 수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나의 공연기획안에 새로운 기술이나 독창적 표현이 없을 경우 개별 공연기획안에 본 기획안이 자신의 창작물로 개인 소유이자 영업 비밀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상대방(및 내부자들)에게 이에 대한 비밀 유지 약정서를 받는 방법으로 본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추후 공연기획안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와 같은 행동과 약속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답변 강재상_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20년 전 단편영화 감독으로 활동했으며 10년 전부터 서울에서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시절의 대세 헤어

우리나라 미용기술의 시작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1930년대에는 1920년대 유행파 신여성들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파마'가 유행을 하다가 6·25전쟁 때 국내에 유엔군이 주둔하면서 헤어스타일 풍속도가 바뀌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는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오드리 헵번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는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용사가 1950년대 인기 직종으로 부상했고, 미용기술을 배우려는 여성들이 학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진 1> 1950년대 미용학원에서 원생들이 파마 연습을 하는 모습.



<사진 2> 1950년대 미용실 풍경.



여성 헤어스타일 변천사

머리카락에 화학약품을 바르고 열로 말려 구불구 불하게 만드는 파마를 미용실에서 할 수 있게 된 건 1933년부터입니다. 초기에는 로트에 머리를 말고, 약을 바른 뒤 약을 말리기 위해 그 위에 솜을 담은 불그릇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파마’라고 불렀죠. <사진 1>은 1950년대 미용학원에서 원생들이 파마 연습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자연스러운 파마가 유행이지만 당시에는 ‘아줌마 파마’로 불리는 꼬불꼬불한 파마 한 가지밖에 없었나 봅니다. 서로 실습 대상이 된 듯 원생들 모두 신

식 파마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또 벽면에 붙은 ‘얼굴형에 맞춘 헤어스타일’이라는 그림도 이채롭고요.

파마는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사진 2>는 1950년대 서울의 한 미용실 풍경입니다. 1kW짜리 전열기구를 머리에 얹고 파마를 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파마를 하는 동안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잡지를 보는 것은 지금과 다르지 않네요. 당시 유행하던 ‘헵번스타일’은 앞머리를 가볍게 밑으로 내리고, 옆머리는 뒤로 바깥 붙여 넘기며 뒷머리는 목덜미 길이로 짧게 자르는 것입니다. 헵번스타일 이전에는 짧은 머리에 웨이브를 넣는 ‘푸들스타일’이 유행했지요. 1950년대 한 신문에 미용 전문가가 기고한 글을 보니 1954년 미국에서 유행해 한국으로 넘어온 ‘딱테일’이라는 헤어스타일도 있었더군요. 이 헤어스타일은 헵번스타일보다 여성스러운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짧은 머리를 차분하게 정리해 한복에도 잘 어울렸다는군요. 신문에는 “옆머리가 살갗에서부터 약간 위로 치키는 듯하여 뒤통수로 넘어가서 뒤통수 중앙에 오리 꼬리 모양으로 아물려지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딱테일 변형으로 원앙새 모양의 ‘다링딱’과 백조 모양의 ‘스완’도 나왔다고 합니다.

머리가 긴 여성은 망아지 꼬리 모양의 ‘포니테일’을 많이 했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망아지 같은 느낌으로, 머리카락을 뒤통수로 빚어 넘겨서 한 묶음으로 땔곤 했습니다. “20 고개를 넘기 전에 꼭 해 봐야 하는 스타일이며 20이 약간 넘었어도 용모와 몸매에



<사진 3> 1950년대 초 미용학원에서 실습을 하는 원생들.

자신 있으면 상관없다”는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보니 당시 젊은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전후 혼란기가 지난 후에는 여성적인 긴 머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뿌우환’이라는 헤어스타일도 나왔습니다. 머리 전체가 부드럽게 부풀어 있는 이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볼록하게 만들어 양감을 강조한 ‘잉크로와이야블’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한 미용기술

여성들이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용학원도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사진 3>은 1950년대 초 한 미용학원 풍경입니다. 6·25 전쟁 후 남성의 부재를 메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원생들은 모두 “빨리 배워 개업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진지하게 실습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일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8년 한 신문에 “미망인들 또는 남편을 도와 부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열심히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다. 미용이라고 하면 무언지 호화롭고 안일한 것을 연상케 하나 고달픈 일도 많다.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어나가며 남의 십인십색(十人十色) 취미와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나 봅니다.

사진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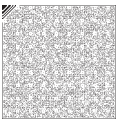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의 서촌 예찬

내 사랑 서촌

김미경 작가는 서촌에 살면서 주변 풍광을 화폭에 담는다. 인왕산이 보이는 동네 풍경과 좁은 골목길, 계절마다 피어나는 서촌의 꽃과 서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작품의 소재가 된다. 서촌의 옥상에 올라 그림을 그리기에 '서촌 옥상화가'라고 불리는 그가, 서촌을 사랑하는 이유를 고백한다.

<옥인동 47번지> 펜, 53 × 72cm, 2014~2017. 동네 친구의 옥상을 빌려 오래오래 그렸다. '신인왕제색도'인 셈이다.

2014~2017 Kyung



매일 걸어 다니는 누하동 뒷골목에 늘 ‘한 번 그려야지’ 하며 지나쳤던 곳이 있었다. 한옥과 적산 가옥이 멀리 보이는 인왕산과 묘한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었다. 어느 날 마음먹고 앉아서 그리고 있는데 동네 사람이 내 그림을 들여다보며 소리쳤다. “오! 우리 집을 그리고 있네! 우리 집 모델로 내셔야겠는데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이었다. 서로 마주 보며 웃는 것으로 끝났지만, ‘정말 모델료를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촌, 나의 새로운 일터

나는 서촌의 산과 건물과 나무와 꽃과 사람들을 그리고, 그 그림을 팔아 먹고산다. 서촌은 내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살아가는 곳이면 서, 내 그림의 대상이자, 일터다. 화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매일 동네 옥상과 골목길, 인왕산을 돌아다니며 그리다 보니 서촌 동네 전체가 내 화실이 됐다.

4월에 인왕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면, 인왕산이 내 화실이 된다. 바위틈을 비집고 앉아 이리저리 힘차게 자라나는 진달래를 그리는 재미에 4월 한 달이 후다닥 지나간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5~6월과 9~11월은 옥상에서 그림을 그리기 제일 좋은 계절이다. 동네 친구들의 옥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는 나는, 동네에서 ‘옥상 동냥녀’로도 불린다. 옥상에서 보는 서촌은 어마어마한 바닷속 풍경인 듯도, 축소된 세계지도인 듯도 하다. 골목길 구석구석도 낚시 의자만 놓으면 화실로 바뀐다.

대학 시절,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종로구 청운동 청운아파트에서 선배 한 명과 자취하며 살았다. 복도 중간쯤에 공동 화장실이 있고, 연탄보일러로 난방을 하던, 방 두 칸짜리 11평 서민 아파트였다. 인왕산에 바짝 붙은 아파트였지만, 그땐 내가 인왕산에 붙어 사는지도 몰랐다. 그 후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생활 하느라 마포구 합정동으로, 마포구 염리동으로, 강동구 명일동으로,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경기도 김포로, 일산으로, 허겁지겁 이사를 다니면서 이 동네를 까마득히 잊었다. 꼭 30년 만인 2012년에, 나는 기억 속에서 자취를 감췄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왔다.

옥상 풍경과 동네 친구가 있는 서촌

‘서촌 옥상화가’로 불리는 나는 옥상에 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옥상 풍경이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옥상에서는 전체 구도가 확연하게 보여 좋다. 동네가 산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어디서부터 길이 시작되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동서남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자리한 곳이 어디인지를 객관화해 볼 수 있어 좋다. 그 새로운 면들이 겹치고 풀리고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예측할 수 없는 선과 면, 그리고 새로운 구도가 멋지다. 인왕산과 건물과 골목이 만든 선과 구도를 찾아낼 때마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기분이다. 인왕산, 북악산,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역사공간이기도 한 서촌은 그 선들만으로 고대, 근대, 현대를 아우르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서촌만의 힘이다.

동네 친구라곤 아주 어린 시절, 집 뒷골목에서 고무줄놀이를 함께하던 친구밖에 없었다. 성인이 되어 ‘회사인간’으로 살았던 30여 년 동안 동네는 아침 일찍 빠져나가는 곳, 밤에 되돌아와 잠자는 곳이었다. 하루 종일 동네를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동네 꽃이 자라는 소리, 골목길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다 보니, 조금씩 동네가 보이고 동네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한다. 서촌에는 친구와 함께 밤마실 나가 술 한 잔을 나누는 동네 친구 문화가 있다.

얼마 전 세 번째 개인전을 열면서 제목을 ‘좋아서’라고 붙였다. 지난 2년간 옥상에서, 인왕산에서, 길거리에서 그린 70여 점의 그림을 선보였다. 모두 서촌 풍경이, 서촌 꽃이, 서촌 사람이, 서촌에서 일어난 탄핵 행진이 좋아서 그린 작품들이었다. 서촌에 어떤 매력이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그리는 서촌 옥상 풍광에 자연과 역사와 문화와 정치와 사회가 오롯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요”라고 혼자 중얼거려본다. 서촌 꽃들에게, 인왕산에게, 집들에게, ‘서촌세’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된다.

글·그림 김미경_화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오십 줄 넘어 화가의 길을 걷고 있다. <브루클린 오후 2시>, <서촌 오후 4시> 등의 책을 펴냈으며,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좋아서> 등 3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

서울의 예술부시장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서울시의 문화 예술 사업을 총괄 집행하는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 그곳의 대표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위상일까? 과장? 국장? 본부장? 아니면 혹시 주무관? 서울시의 문화행정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면 서울문화재단이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보다 이미 그려진 밑그림에 열심히 채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문화재단의 딜레마

서울문화재단은 세 가지 큰 딜레마가 있다. 하나는 태생적 한계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설립되었는데 당시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이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한류패션쇼라는 이름으로 한류스타들을 들러리 세우고 이명박 당시 시장이 곤룡포를 입고 무대 중앙에 등장하는 '하이 이명박 페스티벌'이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런 행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획단의 성격으로 출발했다.

두 번째 딜레마는 첫 번째 딜레마와 연결되어 있다. 기획단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은 조사·연구 기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문화재단의 여러 기능 중 중

후장대한 문화예술 정책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연구는 필수적이다. 최근 이 부분을 보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경기문화재단 등 다른 문화재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인다.

마지막 딜레마는 직접 운영하는 대형 공연장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 소속 문화재단은 대형 공연장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은 법인이 따로 있다.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지 서울문화재단 행사 중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드물다.

물론 서울문화재단은 이 세 가지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다. 서울문화재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술의 장소성'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문화재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인 곳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 중 가장 노마드적이다. 특히 '장소 특정 예술'에 강하다. 그곳이 거리의 공원이든 빌딩숲이든 가리지 않고 판을 깔 줄 안다.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개척해나갔다.

그런데 최근 서울문화재단의 네 번째 딜레마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포구의 문화비축기지에서, 중구의 서울로7017에서, 도봉구의 플랫폼창동61에서,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데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음악섬으로 변신할 한강 노들섬이나 '기억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남산 예장자락에도 서울문화재단의 개입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문화재단이 이런 사업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최정예 특수부대가 전투에 투입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낯설다. 이런 시설이 개장할 때 마지막 홍보마케팅 부분에서라도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전파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각각의 사업들이 공유하는 기초가 없는 것은 서울시가 '총괄 건축가'를 두어 도시 계획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모습과도 대비되었다.

문화예술도시 서울을 위한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점은 각각의 사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과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화예술 행정의 기초는 존중할 만하다. 하지만 서울이라는 메가시티가 공유하는 문화예술관 없이 개별 사업이 진행되면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 그것 또한 서울의 한 모습일 수 있지만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이 만나는 절묘한 지점을 찾는 노력이 아쉽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서울로7017을 개장할 때 대형 설치 미술작품인 <슈트트리>가 논쟁이 되었다. '이런 흉물스러운 작품이 예술이냐'라는 질 낮은 논쟁이 제기된 것은 개장에 맞춰 이벤트처럼 작품을 설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작품에 대해 시민들이 불쾌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반응했던 것은 이를 배치할 때 문화예술적인 고려를 할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화려함을 감싸는 단순한 패턴으로 사치를 경계하고 단순함을 극복하는 포인트로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문화예술 상상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이 맡아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개입하지 않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 말이다. 서울디자인재단 역시 충분히 한몫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발휘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다시 질문을 던진다. 이번엔 실존이 아니라 당위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의 위상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 '예술부시장'은 어떨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모를 '정무부시장'보다 '예술부시장'을 한 번쯤 임명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서울시 세계인이 사랑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문화재단이 역량을 발휘해볼 기회를 주면 어떨까?

글 고재열, 시사IN 편집기획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1, 2, 3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 사진 순서대로 <불꽃을 따라>, <링더벨>, <경상도 비눗방울>.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과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인형>

연말은 클래식과 함께

벌써 2017년의 마지막 달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정리할 것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연말에 멋진 공연이나 아름다운 음악으로 일상의 여유를 찾아보는 것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인류의 화합을 노래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기회는 많지만 연말에 듣는 베토벤 교향곡 제 9번 <합창>은 더욱 특별하다. 이 곡만큼 마음을 정화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기에 좋은 음악도 없다.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가혹한 관습이 갈라놓은 것들을 그대의 신비로운 힘이 다시 결합시킨다. 당신의 아늑한 날개가 있는 곳에서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리.”

베토벤이 <합창> 교향곡 4악장의 가사로 사용한 실러의 시구는 매우 단순한 듯하다. 그러나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마도 인간 개개인이 모두 실러의 시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매우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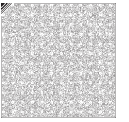
베토벤 역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 15살이었던 1785년, 베토벤은 실러의 <환희에 불임>(An die Freude)에 곡을 붙이고자 시도했



다고 한다. 베토벤이 <합창> 교향곡을 완성한 해가 그가 54살 되던 1824년이니 거의 평생에 걸쳐 <합창> 교향곡을 구상하고 작곡한 셈이다.

베토벤이 평생에 걸쳐 작곡한 <합창> 교향곡은 교향곡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데, 그것은 단지 이 교향곡이 실러의 시를 음악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베토벤은 <합창> 교향곡에서 전 인류가 형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베토벤은 4악장의 <환희의 송가>에 이르기 전까지 <합창> 교향곡 제1, 2, 3악장에서 각기 다른 삶에 대해 주장한다. 제1악장은 마치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처럼 고요한 선율에서 웅장한 선율로 발전해 가며 의욕적으로 출발하지만, 계속되는 갈등과 불안이 음악적으로 표현되고 결국은 비탄의 음악으로 마무리된다. 제2악장은 광포하리 만치 시끄럽고 현란한 춤곡이 연주되며 우리에게 삶으로부터 도망치라 말하는 것 같다. 제3악장에서 마침내 송고한 사랑의 선율이 들려오지만, 4악장에서 베토벤은 제3악장에 표현된 송고한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한다. 그럼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

베토벤은 마치 논문을 쓰듯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비판'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합창> 교향곡 4악장 초반에 1, 2, 3악장 선율의 단편을 다시 제시하면서 그것을 차례로 비판하고, 우리의 사랑은 좀 더 특별해야 하며 모두가 한 형제가 될 만큼 넓은 사랑이어야 함을 음악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그의 주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4악장 도입부에 시끄러운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그리고 "오 친구여! 이런 음악이 아닙니다. 좀 더 즐겁고 환희에 찬 노래를 부릅시다!"라는 가사를 첨가했다. 이처럼 논리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4악장의 <환희의 송가> 합창은 더욱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금껏 <합창> 교향곡 4악장의 <환희의 송가> 선율에만 익숙했다면, 연말에는 공연장에서 <합창> 교향곡 전 악장을 감상하며 베토벤이 이 곡에 담은 논리와 메시지에 귀 기울여보자.

환상적인 꿈으로 가득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인형>

연말에 어울리는 환상적인 무대를 보고 싶다면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인형>만 한 공연이 없다. 화려한 무대와 음악도 일품인데다 어린이들이 나오는 발레 작품이니만큼 온 가족이 함께 보면 더욱 즐거운 공연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호두까기 인형'은 본래 딱딱한 호두껍데기를 갈 때 쓰는 인형인데 꼭 병정처럼 생겼다. 발레의 여주인공 클라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고 기뻐하지만 호두까기 인형을 탄넨 오빠 프리츠가 인형을 빼앗으려다 망가뜨리고 만다. 파티가 끝나고 어린이들이 잘 시간이 되었으나 잠을 이룰 수 없는 클라라는 망가진 호두까기 인형이 잘 있는지 보러 거실로 나갔다가 생쥐들과 인형들이 전투를 벌이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다. 호두까기 인형은 대장이 되어 인형들을 지휘하고 클라라도 슬리퍼를 던져 생쥐 왕을 물리친다. 바로 그때 호두까기 인형이 잘생긴 왕자로 변신해 클라라에게 과자의 궁전으로 같이 가자고 말한다. 클라라는 기뻐하며 아름다운 눈송이들과 춤을 추면서 과자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차이콥스키의 달콤한 선율과 동화적인 음향 덕분에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하는 여정은 더욱 환상적인 모험으로 변모한다. 지금껏 자녀들과 함께 <호두까기인형> 공연을 본 적이 없다면 올해는 꼭 시도해 보기 바란다. <호두까기인형>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멋진 공연이므로.

글 최은규_ 서울대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부수석 및 기획홍보팀장을 역임했다. 월간 객석, 연합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 음악평론가 및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부천필 등에서 클래식 음악을 강의하고 있다.



장충동 문화주택

그곳엔 문화가 있었을까?

서울의 문화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문화를 담는 주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장충동 일대에는 1930년대와 1950년대의 문화를 간직한 주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언덕 위의 하얀 집'을 연상케 하는 마당이 깊은 그 시절의 문화주택들은 오래된 도시의 '문화'를 안고서 잊혀가는 시간의 기억을 전해준다.

햇빛이 따뜻한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외로운 내 마음이 잠들고 싶어요. 울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는 하얀 집 저 멀리서 불러요 손짓하고 있어요. 고독한 나그네에 쉬어가는 하얀 집에 파란 꿈을 담아서 살고 싶어요.

- 정훈희 <하얀 집>(원곡 Casa Bianca)

건축과에 입학했을 무렵 우스꽝스럽게 외치던 우리 학과의 구호에는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가수 정훈희가 부른 노

래의 제목이기도 하고, 1960년대 TV 연속극의 제목이기도 했던 이 '언덕 위의 하얀 집'이 표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면 떠오르는 집이 있는가? 밝은 햇살이 비치는 푸른 초원 위의 하얀 집. 그 자체로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즐거운 나의 집>을 부르게 될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그런 집. 정훈희의 노래가사에서처럼 '언덕 위의 하얀 집'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하고 그리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집인 동시에 어찌하면 가고 싶지만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다다를 수 없는 동경의 대상일지도 모르겠다.

남산장전고대, 1930년대 경성 엘리트들의 문화촌

최근 서울 지역을 답사하다 '언덕 위의 하얀 집'들을 몇 채 발견했다. 이 집들이 위치한 지역의 옛 이름은 남산장전고대(南山莊前高臺). 단어 뜻 그대로 '남산장 앞 높은 지대'라는 의미로, 동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언덕을 따라 오르면 나오는 장충동2가 189번지 일대이다. '남산장'은 파라다이스 빌딩 주차장 일대에 있던 요리점이었는데, 이 요리점 앞에 주택들이 세워진 시기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인구의 증가로 주택 부족 문제를 겪던 경성부는 기존의 경성을 크게 확장하여 '대경성'을 만들고자 했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산주회로를 만들고 장충동, 신당동 등의 서울 동부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했다.

1930년 11월 20일자 <경성일보> 기사에 따르면, 남산장전고대에는 대학의 선생, 의사, 고위 공무원 등 지식인 계층이 거주하여 인근 소회원(장충동1가 38번지 일대)과 함께 '학자촌'으로 불렸다고 한다. 장충단로 건너편 장충동1가 100번지 인근 구감천정(舊甘泉亭) 문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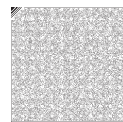
택지만큼 으리으리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순도순 모여 있는 이곳의 집들도 당시로서는 꽤 비싼 가격이었는데, 현재는 다 사라지고 5채 정도만 남아 있다. 이 집들은 대부분 목조로 지어졌으며, 외벽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어 있고, 지붕은 경사지붕이다. 지붕 아래에는 환기를 위한 등골거나 기다란 환기창이 있으며, 외부로 돌출된 커다란 2층 창호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시 이런 주택들은 '문화주택'이라 불렸으며,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선인들 중에서도 상류층이나 지식인 계층에서는 문화주택에 사는 이들이 꽤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본인들 중에서도 하류층은 문화주택에 살 수 없었다.

언덕 위의 하얀 집, 문화주택

'문화주택'(文化住宅)이라는 단어는 1920년대 일본을 통해 조선에 소개되었다. 문화주택은 도시 중산층을 위한 주택으로, 좌식이 아닌 입식 생활, 접객공간이 아닌 가족공간에 중요성을 두는 공간 구성, 화장실이나 부엌 등의 위생설비 구비 등의 성격을 갖추었다. 그런데 이 문화주택을 어디에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에는 '남향의 높은 곳'이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남향의 높은 곳은 햇빛을 받기에 유리하고, 또 저지대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에 건강한 지역으로 여겨졌다. 즉 '언덕 위의 하얀 집'은 햇빛을 받기 좋기 때문에 살균 효과도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화주택지로 남산의 남쪽 언덕과 같은 장소가 선호되었던 것이다.



3



4



5

1, 2, 3 장충동2가 189번지 일대의 1930년대 건축된 남산장전고대 문화주택들.
4, 5 1950년대 후반에 지어진 문화주택들. 현재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 중이다.

그런데 문화주택은 비단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주택들만 일컫는 말은 아니었다. 1950~60년대에도 우리는 자주 '문화주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연와조의 경사지붕을 가진 2층 주택이 주를 이루는 1950~60년대의 문화주택은 역시나 서양식 생활을 지향하는 도시 중산층의 주택을 의미했다. 외부는 시멘트몰탈 대신 치장벽돌이나 연석 같은 석재로 마감하고, 채광창과 환기창이 크게 나 있으며, 1층과 2층을 잇는 내부 계단실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주택들이 다수 지어졌다. 동호로를 따라 조금 북쪽으로 가면, 장충동1가 33번지 인근에 1950년대에 지어진 문화주택들이 몇 채 남아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글·사진 이연경.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건축역사이론 전공으로 석·박사를 취득했다. 한성부 내의 일본인 거류지에 대한 박사논문으로 제6회 심원건축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도코모모, 도시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성부의 작은 일본 전고개 혹은 本町>이 있다.

여성 예술가의 삶을 조명한 <파올라>

유리천장, 깨뜨리기

여성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건 착취와 투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 시대의 편견과 벽에 부딪혀 고전했지만 끝내 자신의 화풍을 구축한 여성 화가들을 다룬 영화들이 있다. 미국의 마가렛 킨을 소재로 한 팀 버튼 감독의 <빅 아이즈>, 로댕의 그늘에 가려 불행한 삶을 살다간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을 모델로 한 동명의 영화들, 그리고 지난 11월에 개봉한, 독일의 여성 화가 파올라의 삶을 그린 영화 <파올라>이다.

팀 버튼 감독은 <빅 아이즈>(2014)를 통해 1950년대 미국 대중미술계에 혁신을 일으켰던 화가 마가렛 킨(에이미 애덤스 분)의 기막힌 스토리를 조명한다. 마가렛은 재혼한 부동산업자가 화가 행세를 하며 자신의 작품을 내다팔아 부와 명성을 얻는 동안, 정작 자신은 딸에게도 화가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골방에서 작업을 하며 지내야 했다. 큰 눈의 소녀를 그린 마가렛의 그림들은 기괴하다고 무시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화풍을 고집했고 30년간 착취당하고 숨어 지냈던 삶을 떨치고 결국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간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야 시대를 훌쩍 넘어서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조각가 로댕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채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야 했던 천재 아티스트 카미유 클로델. 그녀 역시 편견과 차별의 시대, 예술은 남성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시대에 재능을 펼치지 못한 채 사그라들어야 했다. 그 '야만적인 기준'의 반경 안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숨죽여 살고 있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카미유 클로델의 불운한 삶은 브루노 누이땅의 <카미유 클로델>(1988) 브루노 뒤몽의 <카미유 클로델>(2013) 등을 통해 조명되었다.

1 영화 <파올라>의 한 장면.

2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가렛 킨 영화 <빅 아이즈>의 한 장면.



1



“아무리 그래도 난 할 거예요!”

스크린이 불려온 또 한 명의 여성 화가가 있다. 19세기 말 활동했던 최초의 여성 화가로 명명된 파울라 모더존 베커는 독일 표현주의를 개척한 선구자적 화가로, 사실적이고 정밀한 풍경화를 추구하던 당시 미술계에 단순한 선, 무미건조한 색채를 통한 화풍으로 주목받았다. <실 잣는 농촌 여인>(1899), <어머니와 젖 먹는 아기>(1906), <누워 있는 모자의 누드>(1907)를 비롯해,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한 누드 자화상 <호박 목걸이를 한 자화상>(1906) 등의 대표작을 통해 파울라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후대의 인정과 달리 31살의 짧은 생애를 보내는 동안 파울라는 여성을 등한시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싸워야 했다. 오로지 자신이 그토록 열정을 바치고자 했던 그림을 위하여. 영화는 한 예술가의 빛나는 찰나, 그리고 그 찰나를 위해 매진했던 여성이자 화가인 파울라 모더존 베커의 삶을 그려나간다.

1876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파울라. 그녀는 당시 또래 여성들과 달리, 미래를 개척한 여성으로 기억된다. 파울라는 자신의 의지로 두 번 집을 나간다. 한 번은 나고 자란 집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그림에 대한 열망으로 화가가 되고자 했던 파울라를 향해 아버지는 “너무 거창한 것 말고, 실현 가능한 미래”를 꿈꾸라며 그녀를 나무란다. 아버지가 제시한 미래는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생산해 가정을 꾸리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이었다. 여자는 화가가 될 수도

없던 시절이었고, 파울라의 그림은 “재능이 없다”란 말로 묵살되어야 했다. 파울라는 커다란 이젤과 물감, 붓통과 물통 등 그림을 그릴 재료들을 잔뜩 몸에 이고, “아무리 그래도 난 할 거예요!”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집을 나왔다.

두 번째로 그녀가 집을 나온 건 결혼 후다. 독일의 예술가 공동체 ‘보르프스베데’에서 화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던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이해받지 못할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 화가인 남편 오토 모더존을 떠나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파리로 찾아온다. 역시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올 때 짊어졌던 그 무거운 화구들을 몸에 칭칭 이고, 끌고서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는 당시의 화풍에서 그녀는 당당히 “내 시각도 중요하다”고 외친 독특한 아티스트였다. 남자들의 작품을 인정하는 예술계에서 그녀는 “진정한 내 것을 만들고 싶다”며 “서른 전에 성공하고 싶다. 세 점의 그림과, 아기를 낳겠다”는 절실한 목표를 세운다.

여성 예술가들의 생존법

영화에는 19세기 파울라가 활동하던 시절의 공기가 고스란히 묘사된다. 파울라가 매료된 세잔의 그림이나 로댕의 작품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녀와 예술적 교류를 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묘사된다. 특히 파울라의 대표작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초상>(1906)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파울라와 함께 호흡했던 그 시대 여성 예술가들의 고충도 다분히 피력된다. 파울라와 독일에서부터 함께 성장한 친구 클라라 베스트호프와 술집에서 만나는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다. 그녀는 마침 로댕의 조수로 일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생활을 파울라에게 토로하는 중이었는데, 곁에는 그런 로댕을 원망하며 조각을 혈값에 팔아넘기는 카미유 클로델이 마치 카메오처럼 등장하기도 한다. 남편을 떠난 파울라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시도도 없지 않다. 영화는 이렇게 여성이 억압받던 시대, 여성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존해나갔는지를 조명한다.

영화를 연출한 크리스찬 슈비초브 감독은 파울라를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나가며 운명을 개척한 여성, 시대의 유리천장을 깬 놀라운 여성”이라며,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다간 여성화가 파울라를 통해 관객들 역시 용기와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전한다. 10년도 채 안 되는 작품 활동 기간이었지만, 그녀가 독일 예술계와 여성사에 남긴 족적은 여전히 되새겨야 할 지점이다.

글 이화정, 씨네21 기자

2017 CALENDAR

12



<우리 내기할까요>

<우리 내기할까요>는 '내부자들'의 '끼리끼리' 문화를 '기부자들'의 '서로서로' 문화로 바꾸어가기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의 기부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은 더 즐겁고 다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부 및 제휴 문의

02-3290-7053~7,

seoulmecenat@sfac.or.kr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남산창작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문화철도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4

5

6

- 2017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기획전시 <기항지 : A Port of Call> (~12.17)
- 윤학 클래식 뮤지컬 <첫사랑>(~12.25)
- 뮤지컬 모래시계(~2018.2.11)
-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 (~2018.2.25)

- 2017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12.31)
- 연극 <블라인드>(~2018.2.4)

11

12

13

- 스토리텔링 오페라 <라보엠>(~12.13)

- 게르기예프 &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 어린이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12.31)
- 전시 <미래 과거를 위한 일> (~2018.3.4)

- <K-RAFFITI 2017: The New Wave 展> (~12.13)
- 클래식 동요 뮤지컬 <꿈꾸는 뽕상> (~2018.2.4)

18

19

20

- 연극 <택시 안에서>(~12.26)
- <에르미타시박물관展, 겨울 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2018.4.15)

- 2017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 작품: 서울원드앙상블 <제100회 정기연주회-크리스마스 콘서트>
- 경기필하모닉 애플루트시리즈 IV _ 성시연의 베토벤
- 연극 <안네 프랑크>(~2018.1.7)

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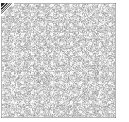
27

- 전시 <메이크 잇>(Make it)(~12.25)
- 연극 <미녀와 야수>(~12.30)

- 삼성카드 셀렉트 41 <베토벤 겨울연가>
- 뮤지컬 <라면에 파송송>(~12.26)

만가잇

- 국악콘서트 <다담: 오순경-복을 부르는 그림을 내 집안에>
- 라움 마티네콘서트



THU

FRI

SAT

SUN

1

- '더힐링스쿨' 프로그램 결과공유 전시
<우리 마음 보고 갈래요?>(~12.4)
- 2017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 작품:
연우무대 <외 당신이 잠든 사이>
(~2018.2.4)
- 2017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 작품:
연극열전 <TOC TOC>(~2018.1.28)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017
송년음악회' (9th Symphony)

2

- <실내악 시리즈 7: 시간의 종말을 위하여>
- 국립극단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낭독 쇼케이스(~12.4)
- 오페레타 뮤지컬 <판타지아>(~2018.1.21)

3

- 연극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
(~12.3)
- <선과색 기획전 - 공중부양 1982>
(~12.10)

7

- 2017 서울문화재단 '감사의 밤'
- 2017 공예렌드페어(~12.10)
- 국립오페라단 <라보엠>(~12.10)
- 서울디자인페스티벌(~12.11)
- 국립현대무용단 레퍼토리
[댄서 하우스](~12.12)
- 2017 정동극장 창작ing 뮤지컬
<판>(~12.31)
- 전시 <PAPER, PRESENT: 너를 위한
선물>(~2018.5.27)

8

- 2017 MEET_국제교류 선정작
<Digital Outsider>(~12.17)
- 전시 <고무고무. 열여섯의 움직임은 기술>
(~12.28)
- 201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향유공예展>(~12.22)
- 연극 <준대로 받은대로>(~12.28)
- 국립극장 마당놀이 <삼청이 온다>
(~2018.2.18)

9

- 한마음살림장(~12.10)
- 예술의전당 콘서트 오페라 <투란도트>
- 윤학 클래식 뮤지컬 <베토벤>(~12.30)
- <마리 로랑생展 | 색채의 황홀>
(~2018.3.11)

10

- 故 백인영 명인 5주기 추모음악회
<빛소리도 임의 소리>
- 베이스 르네파페 첫 내한공연
-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특별전
<2017 서울새활용전: 지구를 위한
약속>(~12.10)

14

- 제9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공요와 격차: 기술 혁신 시대의 예술>
- 국립무용단 <향연>(~12.17)
- 연극 <반쯤가리 자작>(~12.31)
- 2017 연희단거리패 겨울가죽극
페스티벌3 <스크루지>(~12.31)
- 뮤지컬 <아이러브유>(~2018.3.18)

15

- 국립현대무용단 <투오넬라의 백조>
(~12.17)
-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 기념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12.20)
- 뮤지컬 <광화문연가>(~2018.1.14)
- 연극 <양리할아버지와 나>(~2018.2.11)
-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2018.3.11)

16

- 2017 MEET_창작 선정작
<사랑시선>(~12.17)
-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
오픈 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카데미 8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체어팩>(~12.22)
- 2017 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12.25)

17

21

-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12.31)
- 애니메이션 콘서트 <애니콘>(~2018.1.14)
- 전시 <더 뮤즈 - 르노아르, 클림트, 드가>
(~2018.3.11)
- 전시 <신여성 도착하다>(~2018.4.1)
- 전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8.4.15)

22

- 모두의 시민청(~12.24)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합창뮤지컬
<왕자와 크리스마스>(~12.23)
- 2017 국립국악원 송년공연
<세종의 신악>(~12.27)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0세기
서화미술거장 I <붓으로 조각하다 -
김중영>(~2018.2.4)
- <알렉산더 지라드, 디자이너의
세계展>(~2018.3.4)

23

- 모두의 시민청 특별공연 <송년음악회>
- 인생의 사계를 그리는 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12.24)
- 꿈의숲아트센터 기획프로그램
<겨울이야기>(~12.25)
- 연극 <발렌타인 데이>(~2018.1.14)

24

- 2017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기 구라모토와 친구들

28

-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W(~12.31)

29

30

윤동주 탄생 100주년

- 마포중앙도서관 개관 기념展
<이상한 나라의 도서관>(~12.30)
- 전시 <테리보더: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12.30)
- 연극 <하루>(~12.30)

31

- 2017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 전시 <김환기: 책그림 책속그림>(~12.31)
- 뮤지컬 <미스터 쇼>(~12.31)
- 뮤지컬 <에어포트 베이비>(Airport Baby)
(~12.31)

FRI_01



‘더힐링스쿨’ 프로그램 결과공유 전시 <우리 마음 보고 갈래요?>

서울예술치유허브 ‘더힐링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작품과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담은 영상 및 사진을 전시한다.

일시 12월 1일(금)~4일(월)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서울예술치유허브 2층
(갤러리 맷음, 스튜디오#3 등)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 작품: 연우무대 <오! 당신이 잠든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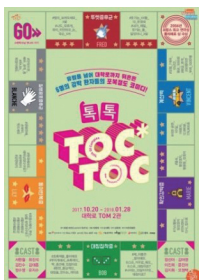
가톨릭 무료 병원의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생방송 TV 인터뷰를 앞둔 하반신마비 환자가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시작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따뜻한 인간애를 다루는 작품이다.

일시 ~2018년 2월 4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2시·5시·8시, 일 오후 2시·5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4관

관람료 전석 4만 5천 원

문의 02-744-7661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 작품: 연극열전 <TOC TOC>

뚜렛증후군, 계산벽, 질병공포증, 확인강박증, 동어반복증, 대칭집착증 등 각기 다른 강박증을 가진 6명의 환자들이 벌이는 포복절도의 유쾌한 해프닝을 그렸다.

일시 ~2018년 1월 28일(일) 화~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TOM2관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02-766-6007

SUN_03



연극 <당신이 알지 못하니이다>

2016년 <안녕, 주정뱅이>로 문단의 화제를 몰고 온 권여선 작가의 중편소설 <당신이 알지 못하니이다>(2016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 발표, 제17회 이효석 문학상 우수작품상 수상작)를 박해성 연출이 희곡으로 각색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일시 ~12월 3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학생 1만 8천 원

문의 02-758-2150

TUE_05



뮤지컬 <모래시계>

최고 64.5%의 시청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드라마, 일명 ‘귀가시계’로 불리며 화제를 모은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가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혼란과 격변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안타깝게 얹혀버린 세 주인공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내기 위한 그들의 선택을 담았다. 속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 클래식과 록을 넘나드는 웅장하고 서정적인 음악으로 숨가쁜 시대의 변화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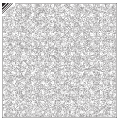
일시 12월 5일(화)~2018년 2월 11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
(12월 26일, 1월 2일 공연 없음)

12월 27일, 1월 3일 오후 3시 공연 없음)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44-1555



THU_07



2017 공예트렌드페어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공예트렌드페어는 공예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을 통해 한국 공예 문화의 대중화, 산업화를 선도하는 공예 전문 박람회이다. 국내 공예작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의 우수 공예작가를 유치하고 저명한 마케터들을 초청하여 공예 기반의 리빙 트렌드를 살펴보고 교감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을 조성한다. 테이블웨어, 주방용품, 가구, 조명, 패션, 장신구 등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한다.

일시 12월 7일(목)~10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코엑스 A홀

관람료 8천 원, 예매 시 4천 원

문의 02-398-7937, 7933

Cabinet of Curiosities, paper, scotch, 80x100cm, 2012 @Zm&Zou



전시 <PAPER, PRESENT: 너를 위한 선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섬세한 감각으로 아날로그적 소재인 종이와 감성적인 매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팀의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종이의 본래적 속성에 집중하여 재료 자체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바람, 별빛, 햇살 등과 같은 자연 요소와 기억, 설렘과 같은 감정의 요소를 종이와 결합하여 구성된 공간들을 통해, 자연 현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아날로그적 정서를 자극하는 매체로서 종이를 경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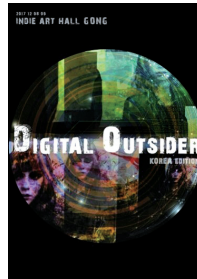
일시 12월 7일(목)~2018년 5월 27일(일) 화~일
오전 10시~오후 6시(목·토 오후 8시까지)

장소 대림미술관

관람료 성인 6천 원, 초·중·고 학생 3천 원,
미취학 아동 2천 원

문의 02-720-0667

FRI_08



2017 MEET_국제교류 선정작 <Digital Outsider>

디지털페인팅을 주 매체로 사용하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실험을 실행하는 프로젝트로, 쉽고 빠른 변형이 가능한 디지털페인팅의 특성을 활용하여 '과정' 중심의 예술 활동을 전개한다. 전시와 강연,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일시 12월 8일(금)~17일(일)

장소 인디아트홀 공

대상 누구나

문의 02-2676-0093



<고무고무 열여섯의 움직이는 기술>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아고라: 고무동력기<記>>의 참여 예술가, 기획·비평가 16인의 매칭 워크숍 및 전시가 진행된다.

일시 12월 8일(금)~28일(목) 오전 11시~오후 8시
(월·공휴일 휴관),

8일(금) 오후 6시 오프닝

23일(토) 오후 2시~6시 작가×비평/기획자 워크숍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지하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5995



연극 <준대로 받은대로>

국립극단은 격동의 2017년을 마무리하는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희비극 <준대로 받은대로>를 선보인다. '권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은 권력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타락을 목격하며 법과 도덕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세운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이다.

일시 12월 8일(금)~28일(목)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1644-2003, www.ntck.or.kr



국립극장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원형극장에서 펼쳐지는 명품 마당놀이. 3년 만에 돌아온 심청이와 함께 올해도 객석은 연신 웃음바다가 되고 떠들썩한 잔치판이 된다. 당돌한 심청, 능글맞은 심봉사와 할 말 많은 뽕덕 어머를 만나보자.

일시 12월 8일(금)~24일(일)

화·수·토·일 오후 3시, 목·금 오후 8시

12월 26일(화)~2018년 2월 18일(일)

화·목·토·일·공휴일 오후 3시, 금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SAT_09



<마리 로랑생展 | 색채의 황홀>

시대를 앞서간 여성 화가 마리 로랑생의 작품 세계를 대규모로 조망해보는 국내 최초의 특별전으로 100여 점이 넘는 유화, 드로잉, 판화가 출품된다. 명시 <미라보 다리>와 <잊혀진 여인(진정제)>의 주인공이자 피카소, 아폴리네르, 앙드레 지드, 장 콕토 등 수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몽마르트의 뮤즈로 불렸던 그녀의 작품은 파리가 예술가들의 물결로 넘쳐났던 '벨 에포크' 시대를 특유의 색채미로 담아낸 귀중한 유산이다. 총 5개 섹션으로 구분된 이번 전시는 입체파와 야수파의 영향을 받았던 1900년대 초반부터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한 1950년대까지 작가의 전 시기를 망라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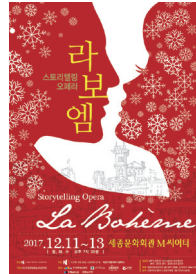
일시 12월 9일(토)~2018년 3월 11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3월은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 3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천 원

문의 02-396-3588

MON_11



스토리텔링 오페라 <라보엠>

오페라를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간다. 오페라 <라보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공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관람 포인트를 알려주며 관객들이 공연에 꼭 빠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일시 12월 11일(월)~13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VIP석 15만 원,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C석 2만 원

문의 02-3141-6618

WED_13



<K-RAFFITI 2017: The New Wave 展>

한국의 대표적인 그래피티 라이터 4인 알타임조, 지알원, 제이 플로우, 제바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형 벽화 작품과 그래피티 위를 영상으로 수놓아 마치 3D처럼 보이게 만드는 프로젝션 맵핑 등을 통해 한국 그래피티의 현주소를 선보인다.

일시 ~12월 13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

장소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

관람료 성인 5천 원, 초·중·고 학생 4천 원,
미취학 아동 3천 원

문의 02-2135-8182

THU_14



제9회 서울시장작공간 국제심포지엄 <풍요와 격차: 기술 혁신 시대의 예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두로 막연한 불안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점에서 예술가와 관련 분야가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기회, 이와 관련된 당면과제와 미래전망 등을 이야기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내외 석학들의 심도 깊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시 12월 14일(목)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

대상 누구나

문의 02-807-4800

FRI_15

**뮤지컬 <광화문연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죽기 전 1분, 추억과 진실한 사랑을 찾는 이야기이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붉은 노을> 등 세대를 넘어 모두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故 이영훈의 명곡으로 따뜻한 감성을 더한다. '중년명우' 역할로 안재욱, 이진명, 이경준이, '월하' 역에는 정성화, 차지연이 참여해 검증된 연기력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인다. 이지만 연출과 고선웅 극본이 빚어내는 멋진 하모니를 만날 수 있다.

일시 12월 15일(금)~2018년 1월 14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30분,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

(12월 18일·26일, 1월 8일 공연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1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B석 4만 원

문의 02-399-1000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까칠하고 괴팍한 도시 할배 앙리, 시골마을에서 뭐하냐 제대로 되는 일 없이 아버지의 잔소리를 달고 사는 콘스탄스. 70대 독거노인과 20대 방황하는 청춘의 특별한 우정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다. 이순재, 신구, 박소담, 김슬기 배우 등이 출연한다.

일시 12월 15일(금)~2018년 2월 11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12월 26일, 1월 2일

공연 없음, 월 공연 없음)

장소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문의 02-744-7661

SAT_16

**2017 MEET_창작 선정작 <사랑시선>**

독립영화감독 정호윤이 문래창작촌을 배경으로 제작한 사실주의 장편영화 <사랑시선>의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일시 12월 16일(토)~17일(일)

장소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대상 누구나

문의 02-2676-4332

TUE_19

**<에르미타시박물관展, 겨울 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국립중앙박물관과 러시아 에르미타시박물관이 함께하는 특별전이다. 니콜라 푸생, 도미니크 앵그르, 클로드 모네, 앙리 루소 등 프랑스 거장들의 회화와 조각, 드로잉 89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프랑스 미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동시에 프랑스 문화에 대한 18~19세기 러시아인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12월 19일(화)~2018년 4월 15일(일) 월·화·목·금 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 오전 10시~오후 9시, 일·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미정

문의 02-2077-9000

WED_20

**서울메세나지원사업 선정 작품:****서울원드앙상블 <제100회 정기연주회>**

제100회 정기연주회를 맞은 서울원드앙상블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펼쳐진다.

일시 12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KBS홀

관람료 미정

문의 02-2183-1292

THU 21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영원한 스테디셀러가 돌아온다. 세대 간 소통의 부재가 문제시되는 현대사회에서 <호두까기인형>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선물한다.

일시 12월 21일(목)~31일(일) 평일 오후 4시·7시 30분, 주말·공휴일 오후 3시·7시

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관람료 연인석 22만 원, VIP석 10만 원,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3만 원, B석 1만 원

문의 070-7124-1737

FRI 22

**2017 국립국악원 송년공연 <세종의 신악>**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의 예약사상이 담긴 최초의 국문시가 <용비어천가>를 국립국악원의 음악과 춤으로 재창작한 <세종의 신악>. 한국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진 장중하고 위엄 있는 무대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일시 12월 22일(금)~27일(수)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국립국악원 예약당

관람료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580-3300

**<알렉산더 지라드, 디자이너의 세계展>**

20세기 디자인 역사를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 알렉산더 지라드의 대규모 회고전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라드의 삶과 업적을 아우르는 707점의 작품을 총 4부로 구성해 종합적이며 다이내믹하게 보여준다.

일시 12월 22일(금)~2018년 3월 4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3월은 오후 8시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 3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천 원

문의 02-6273-4242

SAT 23

**꿈의숲아트센터 기획프로그램 <겨울이야기>**

꿈의숲아트센터에서 3일간 크리스마스 공연이 열린다. 12월 23일에는 서울 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첼리스트 송영훈, 소프라노 최주희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 24일에는 웅산, 라벤타나, 찰리정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재즈 콘서트>, 25일에는 크로키키브라더스, 잼스틱이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진행된다.

일시 12월 23일(토)~25일(월) 23·25일 오후 3시, 24일 오후 5시

장소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콘서트홀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2만 원(공연별 상이)

문의 02-2289-5401

THU 28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W**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는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래픽디자인 분야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매년 7월과 12월에 개최된다. '서울일러스트레이션 페어 W'에는 3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인다. 연말과 새해를 맞아 '눈사람', '해피2018문구전', '그리팅카드공모전' 등 기획전 및 특별전이 준비될 예정이다.

일시 12월 28일(목)~31일(일) 28일 오전 11시~오후 6시, 29~31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삼성동 코엑스 B홀

관람료 성인 1만 원, 청소년·어린이 6천 원

문의 02-2062-8600

풍요와 격차:

제9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The 9th Seoul Art Space International Symposium

기술 혁신 시대의 예술

The Bounty and the Spread:
Art in the New Era of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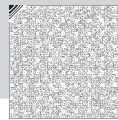
- 01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예술
조종걸 (前토론토대 교수)
질의: 김광식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 02 예술과 예술노동의 미래:
로봇이 '백조의 호수' 공연을 한다면,
당신은 돈을 내고 관람하겠는가?
팀 던롭 Tim Dunlop (『노동 없는 미래』 저자)
질의: 박신의 (경희대 교수)
- 03 역사 속의 과학기술과 예술:
기술의 발전에 예술은 어떻게 반응해왔는가
임경순 (포스텍 교수)
질의: 이원곤 (단국대 교수)
- 04 기술이 예술의 창작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립예술기금(NEA)과
문화혁신센터(CCI) 공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앤지 김 Angie Kim (미국문화혁신센터 대표)
질의: 유진상 (계원예술대 교수)

좌장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2017. 12. 14.(목)
14:00~17:3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참가문의 02-807-4800 / www.sfac.or.kr
참가신청 금천예술공장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세요
* 사전등록자에 한해 자료집 및 기념품 선착순 배포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unhwaplusseoul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독자엽서

이준희 님(강원도 철원군)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철원군 갈말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예술가의 밥그릇' 타티스트 이서하 기사가 좋았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잘 전달해주어 좋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서울거리예술축제'를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아쉬움을 이번 달 후기로 달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연, 전시 후기도 정기적으로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현재 [문화+서울]이 마음에 듭니다.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알찬 기사와 꼼꼼한 한 달 공연, 전시 스케줄, 항상 감사드립니다. ^^

11월호 독자엽서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찾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철원군 갈말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 "예술가의 밥그릇" - 타티스트 이서하 > 기사가 좋았습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잘 전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서울거리예술축제'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아쉬움을 이번 달 후기로 달렸습니다.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현재 [문화+서울]이 마음에 듭니다.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알찬 기사와 꼼꼼한 한 달 공연 / 전시 스케줄 항상 감사드립니다. ^^

*본지에는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munhwaplusseoul)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엽서는 우로 배송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편집 후기

Adieu 2017.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장

'나는 11개월 동안 미친 듯이 정신차렸다'

11월이면 생각나는 시 <11월의 비>

그 비가 눈으로 내리는 곳에서 십이월을!

안현미 서울문화재단 IT홍보팀 차장

건강이 최고입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고. 어떤 것도 과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범

4인용 식탁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문화재단이 인연이 되어 만난 직원 부부 2쌍이 주철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떤 집에 살 것인가부터 자녀와의 관계 맺기, 일과 가정생활, 부부관계, 함께 자리했던 내수동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문화예술 이야기까지. 대표이사사가 아닌 인생 선배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사업과 삶을 펼쳐갈 힘을 얻었습니다.

문래예술공장 선결·공을채, 지역문화팀
김진환·원은지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